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육학 석사학위논문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 및 인식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Media Discourse and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박 승 일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권 순 용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박 승 일

박승일의 체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 원 장 권 성 호 (인)

부위원장 임 충 훈 (인)

위 원 권 순 용 (인)

국문초록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 및 인식에 관한 연구

박 승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보고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한 문헌고찰, 비판적 담론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담론분석은 고척돔이 처음 논의되었던 2005년 8월부터 최초 개장일인 2015년 11월까지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온라인 기사 중 ‘고척돔’, ‘고척동 야구장’, ‘서남권 야구장’의 키워드로 검색된 100개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고찰과 담론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 9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분석 결과 첫째, 최초의 돔구장 건립을 통해 국제대회 유치, 서울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역할과 같은 새로운 야구장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둘째,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따른 보상과 아마추어 야구성지의 재현으로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스텔지어와 과거의 재현이라는 담론을 형성하였다. 셋째, 개방형 구장에서 완전 돐구장으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꿈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한 긍정 담론을 형성하였다. 넷째, 입지 선정과 예산 증대에 따른 비판적 시각에서 고척돐을 애플단지로 나타내는 담론도 형성되었다. 다섯째, 고척돐의 건립이 지역발전과 지역마찰에 영향을 주지만 결국 서로의 이해관계를 좁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고척스카이돐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은 첫째, 돐구장 건립에 대한 인식으로 최초와 유일의 돐구장, 랜드마크로의 역할, 돐구장의 확산, 우려의 시선, 입지와 교통의 문제에 대해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설계 변경에 대한 인식으로 상시 사용 가능한 야구장의 건립, 프로전용 야구장 결정, 8번의 설계변경에 대해 나타났다. 셋째, 야구 발전에 대한 인식으로 야구의 저변 확대와 인프라 확충, 야구단체와의 협의 결여가 나타났다. 넷째,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도시 이미지의 개선, 지역발전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요어: 고척스카이돐, 돐구장, 스포츠시설, 비판적 담론분석
학 번: 2015-21662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3. 연구 문제	6
4.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8
1. 담론(discourse)의 이해	8
가. 담론과 담론분석	8
나. 미디어 담론분석의 이해	12
2. 스포츠시설과 지역사회(community)	17
가. 스포츠시설의 이해	17
나. 스포츠시설과 지역사회	23
3. 고척스카이돔	21
가.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대체구장 논의	21
나. 고척스카이돔의 현황	23
III. 연구 방법	32
1. 연구 설계	32
2. 연구 참여자	33
3. 자료 수집	37
4. 자료 분석 및 해석	41
5. 연구의 타당성	44
6. 연구의 윤리성	44

IV.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	45
1. 최초의 돔구장 건립 : 새로운 야구장의 탄생	46
가. 최초의 돔구장	46
나. 국제대회의 유치 기대	49
다. 새로운 랜드마크	50
2.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 노스탤지어(nostalgia)와 과거의 재현	51
가. 동대문야구장의 보상	51
나. 아마추어 야구성지의 재현	53
3. 완전 돔구장과 꿈의 지붕 : ‘꿈은 이루어진다’	54
가. ‘개방형에서 완전 돔으로’	54
나. 꿈의 지붕	55
4. 입지와 예산에 대한 비판 : 애물단지로의 전략	56
가. 부적합한 입지 선정	56
나. 돈 먹는 괴물	57
5. 지역사회와의 공존 : 논제로섬게임(non-zero sum game)	59
가. 지역발전	59
나. 지역마찰	61
V.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인식	62
1. 돔구장 건립에 대한 인식	63
가. 최초와 유일의 돔구장 : 자부심과 설레임	63
나. 랜드마크로의 역할 :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	64
다. 돔구장의 확산 : 후속 돔구장 건립에 대한 기대	65

라. 우려의 시선 : 비판을 위한 비판.....	67
마. 입지와 교통문제 : “차선(次善)의 최선(最善)이다.”	70
2. 설계 변경에 대한 인식.....	73
가. 상시 사용 가능한 야구장의 건립 :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	73
나. 프로전용 야구장 결정 : 아마추어 야구의 좌절, 그리고 희망.....	74
다. 8번의 설계 변경 : 돐구장의 설계와 실용성에 대한 불신.....	76
3. 야구 발전에 대한 인식.....	80
가. 야구의 저변 확대와 인프라 확충 : 생활체육야구의 발전.....	80
나. 야구단체와의 협의 결여 : 정책결정과정의 아웃사이더.....	81
4.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84
가. 도시 이미지의 개선 : 의도되지 않은 효과(unintended effect).....	84
나. 지역발전에 대한 의심 :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88
VI. 논의.....	91
1.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	91
2.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인식.....	93
VII. 결론 및 제언.....	94
1. 결론.....	94
2. 제언.....	95
참고문헌.....	96
Abstract.....	116

표 목차

표 1. 고척스카이돔 건립 개요	25
표 2. 고척스카이돔 예산변경 현황 및 설명자료	29
표 3. 연구 참여자의 특성	34
표 4. 담론분석 대상	38
표 5. 심층면담 주요 질문지	40

그림 목차

그림 1. 페어클로(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14
그림 2. 프로야구 관중 수	23
그림 3.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	6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간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Giddens, 1990; Harvey, 1999; Koch, M., 2017). 사회 전반에 걸쳐 도시화, 현대화,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공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조명래, 2013; Erkip, 2003; Gans, 2002; Mills, 1997; Relph, 1976; Urry, 2001). 공간이라는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맞물려 단순히 물리적, 객관적 의미의 1차원적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내재한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조명래, 2013; Relph, 1976; Schroer, 2005). 사회적 공간으로서 공간은 각 주체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한다.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공간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적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다(이혁기, 2013; 지주형, 2013).

사회변화의 산물로 새로운 건물, 빌딩과 같은 공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한주연, 2003; Bale, 1993a, 2000; Chiu, 2009; Erkip, 2005; Koch, N., 2017; Lipsitz, 1984; Sam & Hughson, 2011), 기존의 공간들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Munarin & Tosi, 2009; Silk, 2004).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스포츠공간도 변화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동, 관람,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스포츠공간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Kural, 2010; Tangen, 2004). 스포츠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어떤 형태로 디자인을 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어느 위치에 건립할

것인지 등의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구강본, 2013; 박성배, 2016; 심창섭, 서용석, 2010; 유지곤, 2004; 이혁기, 2013; 한승백, 2005; Bale, 1993b; Bennett & Frow, 2013; Holloway & Valentine, 2000; Rosenberg, 2015; Sam & Hughson, 2011). 스포츠공간으로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포츠시설이다. 스포츠시설은 스포츠경기장, 스포츠공원, 스포츠센터 등을 포괄적으로 내재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공간적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정보와 통신의 발달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세계화의 추세를 뛰어넘는 현지화(Glocalization)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 차원이 각 도시(City)와 지역(Local)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와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확충, 지역축제 및 산업의 유치와 더불어 관광문화체육자원의 개발 노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재곤, 김현석, 2000;곽정현, 서원석, 2016; 윤이중 외, 2010; 이유찬, 윤종국, 2000a; Ahlfeldt & Maenning, 2010; Gunter, 1011; Hassan & Brown, 2014; Pelissero, 1991; Reid, 2014; Rosentraub et al, 1994; Smith, 2005).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스포츠시설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가의 증진과 더불어 도시경쟁력 향상 및 문화 활동 수요충족이라는 여러 가지 편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곽정현, 서원석, 2016).

그렇다면 지역사회가 스포츠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적 효과이다(곽정현, 서원석, 2016; 김필승, 2005; 이유찬, 윤종국, 2000a; 채재성, 이규환, 2005; Baade & Dye, 1990, 1998a; Buckman & Mack, 2012; Cheng & Jarvis, 2010; Coates & Humphreys, 1999; Gunter, 2011; Lorde & Devonish, 2011; Pelissero et al., 1991). 스포츠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스포츠시설 주변의 시장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이미지를 재고하여 보다 건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행복, 건강, 웰빙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 있다(서원석, 곽정현, 2016; 이유찬, 윤종국, 2000b; 장현승, 이근모, 2014; 정상원, 2012; Baade & Dye, 1988b; Bassa & Jaggernath, 2010; Hassan & Brown, 2014; Hritz & Ross, 2010; Jones, 2001; L' Aoustet & Griffet, 2004).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의 건립을 위해 지방정부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노력한다(고재곤, 김현석, 2000; 김사업, 2004; 박재우, 박현욱, 2011; 이동현 외, 2006; Andrews & Carrington, 2013; Coates & Humphreys, 1999; Gunter, 2011; Jones, 2001; Kennelly & Watt, 2012; Reid, 2014; Sam & Hughson, 2011). 스포츠시설의 건립과 관련된 요구로는 크게 사회적 요구와 지역사회의 요구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요구와 지역사회의 요구 속에서 효율적인 중재과정은 스포츠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양측 모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결국 더 강력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쪽의 요구가 수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배적 담론은 스포츠시설의 건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스포츠시설 건립에서 지역사회의 요구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상원, 2012; Baade & Dye, 1988b; Bassa & Jaggernath, 2010; Hassan & Brown, 2014; Hritz & Ross, 2010; Jones, 2001; L' Aoustet & Griffet, 2004).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누구보다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도쿄돔(Tokyo Dome)을 모델로 타이베이 시에 약 4만석 규모의 돔구장과 편의시설, 호텔시설을 갖추고 있는 타이베이돔(Taipei Dome)을 건설 중이다. 2015년 완공 예정이던 구장은 타이페이시와 건설업체간의 갈등, 야구장 표준 규격의 미달로 인해 공사가 멈춰버렸다. 거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 개발대비 비용문제와 더불어 설계 변경 과정 중 천장의 높이가 낮아져 야구장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

다. 지역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향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던 타이베이돔의 공사 현장은 현재 모든 것이 멈춰버렸으며 개발을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건립된 국내 최초의 프로스포츠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다. 고척돔은 국내 최초의 돔구장으로 건립 그 자체만으로 많은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건립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박선경, 2014; 박성배, 2016; 박재우, 2012; 이두정, 진동성, 2013; 최민규, 2015). 먼저 고척돔은 건립과정에서 총 8번의 설계 변경과정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박재우, 2012; 박성배, 2016; 최민규, 2015). 2006년 ‘최초 야구장 논의’부터 2009년 ‘완전 돔구장 건립 발표’까지 이어진 고척돔의 건립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다. 주변 교통문제와 경기장 소음문제, 주차장 문제는 건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던 가장 큰 문제들이었다. 또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둘러싼 이해관계 역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마추어 전용 야구장’에서 ‘완전 돔구장’까지 애초의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난 고척돔 건립 계획은 결국 400억 원의 총사업비가 270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박선경, 2014; 박성배, 2016; 박재우, 2012; 이두정, 진동성, 2013; 최민규, 2015).

가장 현대화된 국내 스포츠시설로써, 그리고 최초의 프로스포츠 돔구장으로써 고척스카이돔이 갖는 의미는 분명 중요하다(박선경, 2014; 박성배, 2016). 하지만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건립이 된 지금도 주변 교통 혼잡과 소음문제 등의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박재우, 2012; 박성배, 2016; 최민규, 2015).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은 고척스카이돔이 어떠한 건립 과정을 거쳤으며, 어떠한 이유에서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8번의 설계 변경 과정과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긴다. 따라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과정을 바라보는 미디어, 관계자, 야구팬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또한 건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처럼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지역사회에 스포츠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나타나는 담론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스포츠시설의 건립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가능하게 한다. 이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집단과 단체의 의견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에 대한 분석과,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제적인 인식을 통해 미디어 담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보고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시설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은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 1)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2)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미디어 담론(media discourse)

미디어 담론은 신문 기사를 포함한 미디어 뉴스의 특정한 형태 담론을 말한다. 미디어가 문화, 정치 및 사회생활의 구성과 표현을 반영하고, 동시에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디어 담론의 분석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백선기, 2005; Bell, 1998; Fairclough, 1995).

나. 스포츠시설(sport facility)

스포츠시설은 스포츠 활동, 관람, 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일체의 시설로, 신체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일정한 공간을 가지는 물리적 환경을 일컫는다. 광의의 개념은 신체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물리적 조건을 포함하는 시설과 장비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로 정의되며, 협의의 개념은 신체활동을 위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Lipsitz, 1984). 또한 운동의 성립을 충족하는 지리적, 물리적 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운동의 장으로써 정의한다(김사엽, 2004).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고척스카이돔을 의미하고 있다.

다. 지역사회(community)

지역사회는 인간관계 또는 지리적·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뉜 일정한 지역의 사회 또는 커뮤니티를 말하며(Hassan & Brown, 2014),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고척스카이돔이 위치한 고척동, 구로구 지역을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담론(discourse)의 이해

가. 담론과 담론분석

1) 담론(discourse)

담론의 개념은 용도와 연구자,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한다. 담론은 영어로 ‘discourse’로, ‘앞뒤로 움직임’ 또는 ‘이리저리 뛰어다님’을 뜻하는 라틴어 ‘discurrere’에서 파생되었다(강내희, 1990). 따라서 라틴어의 어원상으로 보면 담론은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언어적 행위라기보다, 약간은 뒤죽박죽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움직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류용재, 2010; 신진옥, 2011; 윤평중, 2001).

담론에 관해 최초로 체계적인 정의를 시도했던 푸코(Foucault)는 담론을 ‘논증적인 언어체계’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많은 말이나 발화 및 언어 사용 가운데서 나름대로 학제적이며 논리적인 체계를 갖춘 특정의 언어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Fairclough, 1992a, 1992b, 1995a; Foucault, 1971). 그러나 오늘날에는 담론이라는 개념 아래 거의 모든 언어체계를 총망라하여 포괄하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일상적인 담화,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담론들, 지식 체계를 지닌 언설들, 나아가 정확한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적 명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어체계를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Phillips & Jorgenson, 2002; 백선기, 2005).

맥도넬(Macdonell)(2003a, 2003b)은 담론에 대해 대화가 담론의 기본조건이며 모든 말과 글은 사회성을 띤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담론은 사회구성

원 사이에서 교환되는 언어, 기호의 총체를 뜻하며, 그것이 수행되는 시간적 시점과 상황, 즉 맥락(context)에 의해 의미가 형성된다고 본 것이다.

반다이크(van Dijk)(1997)는 뉴스 담론을 하나의 담론으로 파악하며, 이런 담론은 발화하는 주체, 발화의 대상, 발화의 문맥 및 맥락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작용을 통해 발화 텍스트의 의미가 구성되거나 변화하게 된다고 한다. 아울러 이들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뉴스란 그것이 생산되는 사회적·문화적 맥락뿐 아니라 기자, 독자 및 시청자들의 심리적 상황까지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 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사회적 구조와 담론적 구조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만약 이데올로기의 필요에 대한 요청이 없다면, 사회 내의 모든 행위자들은 같은 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한다(백선기, 2005).

페어클로(Fairclough)(1992a, 1992b, 1995a, 1995b, 2001, 2003a, 2003b, 2015)는 담론을 사회적 실천의 형태로서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담론이 표현양식이며 행위양식임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양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구조와 담론구조사이에는 단순한 대응관계가 아닌 변증법적 관계가 있음을 내포한다. 아울러 그는 담론의 건설적 효과를 세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즉 담론은 사회적 정체성과 주체적 위치의 조직에 공헌하고,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지식과 신념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박해광, 2007; 백선기, 2015).

영어 ‘discourse’ 는 때에 따라 ‘담화’ 로 번역하기도 하고, ‘담론’ 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대개 담화가 주로 드러난 대화나 이야기에 초점을 둔다면, 담론은 그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사고의 구조나 체계까지 포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말과 글을 모두 포함시키며, 말과 글의 이면에 숨은 사고의 구조나 체계, 말과 글의 해석과 생산과정 그리고 언어사용의 상황적 맥락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

로 사용한다(Bell & Garrett, 1998). 즉, 담론은 순수하게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와 실천에 관한 것이다.

담론 혹은 담론구성체(discourse formation)라는 개념의 등장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 이데올로기의 진부성에 대비되는 맥락에서 사용했던 인물들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들은 라클라우(Laclau), 무페(Mouffe), 지젝(Zizek) 등이다. 담론이론은 힌데스(Hindess), 허스트(Hirst)로 대표되는 관념론적 담론이론과 알튀세르(Althusser)와 푸코(Foucault)로 대표되는 유물론적 담론이론으로 대별할 수 있는 것이다(윤평중, 2001).

관념론적 담론이론은 담론의 실체는 담론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담론과 관계가 있는 대상은 우리가 그들을 말하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담론과 외부대상 사이의 모든 구분과 상호연관의 자취들을 체계적으로 거부한다(Macdonell, 1986a, 1986b). 이것은 담론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전통으로 담론의 구성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담론은 그 자체의 특징에 의하여 구분되고 평가되어야한다는 점에서 내재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강내희, 1990).

유물론적 담론이론은 담론이론과 역사적 현실 사이의 매개 통로가 분명하다. 즉, 텍스트와 사회적 실천을 매개하는 담론적 실천의 분석을 통하여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작동영역, 지식의 형성, 주체의 출현이라는 삼각구도를 구체화하면서 관념론적 담론이론과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 이 입장은 담론의 실천성을 강조한다. 담론은 담론 외적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을 형성하기 때문에 단지 담론 자체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물론적 담론이론이 지향하는 목표는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에서 조합되고 구조화되는 언어와 담론이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작동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를 드러내는 데 있다(윤평중, 2001).

2) 담론분석

담론분석은 특정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며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룸으로써 미시사회학을 위한 하나의 분석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해석적 접근, 질적 접근법이라 하며, 이러한 미시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비판적 담론분석은 특정한 담론 및 포상들에 대해 보편적(universal)인 지위를 부여하거나, 헤게모니(hegemony)의 갈등과 같은 연구들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Fairclough, 2003a, 2003b). 주로 상징적인 매개로 구성된 주체들의 사회적 행위와 물질화된 텍스트를 주요 타자로 분석함으로써 주체의 행위와 텍스트간의 사회적 관계, 주체와 텍스트의 상호작용, 사회구조의 유지와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법으로 사용된다(신진욱, 2011).

또한 담론분석은 단순한 텍스트의 기호학적 분석을 넘어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거나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을 탐색할 수 있는 수사학적 연구를 지향한다(Tonkiss, 2012). 이는 담론에 대해 이미 형성된 의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문화 구조와 다양한 이념적 장치를 수용하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의식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과정을 요구한다(박해광, 2007).

이러한 담론분석은 주로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푸코는 담론분석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푸코는 담화를 모든 진술들에 대한 일반적인 영역으로 취급하거나, 때로는 개별화될 수 있는 진술들을 한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다수의 진술들을 설명해주는 실천관행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Fairclough, 2003a, 2003b).

또한 담론분석은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양이 적고 다양한 현상들을 해석하는 부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맥락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인 분석에 적합하다(Barker & Galasinski, 2001; Mills, 1997a, 1997b). 담론분석은 공적인 면의 담론, 혹은 음운론과 언어론적 측면의 언어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실제 사용자가 사회문화적 맥락(context) 안에서 상호 소통하며 획득하는 사회문화적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Van Dijk, 1997).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담론분석이란 구체적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특정텍스트에 드러나거나(manifest) 숨겨진(latent)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텍스트 이면에 내재되어있는 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논의로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미시적 관점에서의 텍스트 분석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류웅재, 2010).

나. 미디어 담론분석의 이해

1) 미디어 담론분석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적 전달을 지상 목표로 내세운다는 제도 담론으로서의 신문도 결국 기자에 의해 작성된다는 점에서 주관성의 개입을 피할 수 없다(백선기, 2005, 2015). 따라서 주관성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는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이 있다. 신문을 포함한 대중매체 담론과 사회 현상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언어 사용으로 정의되는 담론은 믿음의 표현이나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의 담론의 한 형태인 신문도 필연적으로 그 사회에 존재하는 특정한 믿음이나 가치들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Fairclough, 1995b; Wodak & Chilton, 2005). 즉, 신문기사는 현실이나 사안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 구성된 현실이며, 뉴스화라는 구성과정을 거치면서 내·외부의 관련자들, 대중매체 자체의 속성, 사회적 맥락 등의 여러 요인이 개입하여 의미가 만들어지고 변화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의 요소들에 의해 변화하는 의미나 성격, 흐름 등을 담아내는 담론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비판적 담론분석이라는 것이다(김연중, 2004; 백선기, 2005).

벨(Bell)은 신문 기사를 포함한 미디어 뉴스를 특정한 형태의 담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백선기, 2015). 뉴스는 한 사회의 상식적인 보편성에 기초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자나 독자라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작용을 하는 사회적 담론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매체가 뉴스를 통해 현실과 사회구성원을 연계시키며, 이런 뉴스가 어떻게 현실을 규정하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Bell & Garrett(1998)에 따르면 미디어가 문화, 정치 및 사회생활의 구성과 표현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담론의 분석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미디어 담론의 분석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사건이나 사회현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어떻게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2) 페어클로(Fairclough)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페어클로(Fairclough)의 관심분야는 미디어 담론과 그 사회적 상황 혹은 맥락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담론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는 기존 언어학의 미시적 담론분석과 푸코의 거시적 담론이론을 결합함으로써 상호 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분석틀은 텍스트적 실천,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가지 차원 구성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미시적 담론분석과 거시적 담론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다(백선기, 2005, 2015; Fairclough, 1992a, 1992b, 1995a, 1995b, 2001, 2003a, 2003b, 2015). 그가 말한 세 가

지 차원의 담론분석 구조는 말하거나 쓰여진 하나의 언어적 텍스트, 언어적 텍스트의 생산, 생산된 텍스트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담론실천, 사회적 실천이 그것이다. 담론의 단편들은 현재의 상황, 더 넓게는 제도와 조직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과 같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구현된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은 텍스트적 실천에 대한 분석, 담론적 실천에 대한 분석, 사회적 실천에 대한 분석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박거용, 1995; 서덕희, 2003; Fairclough, 1992a, 1992b, 1995a, 1995b, 2001, 2003a, 2003b, 2015; Fairclough & Wodak,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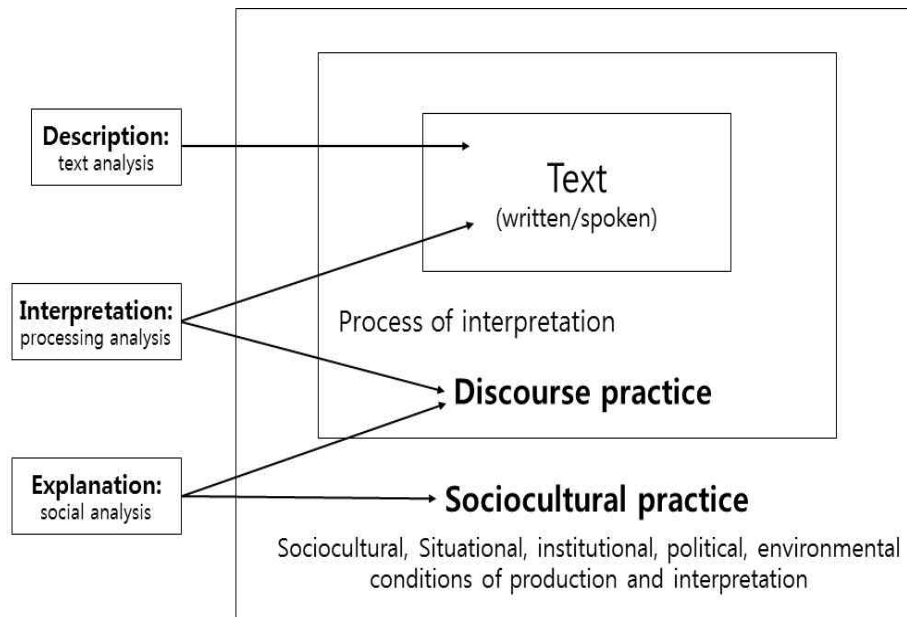


그림 2. 페어클로(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비판적 담론분석의 세 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이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언어학 혹은 사회언어학에서 주로 행해온 미시적 관점의 텍스트 언어분석으로 개별적 텍스트의 형식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페어클로(Fairclough)는

텍스트 분석의 대상을 ‘어휘’, ‘문법’, ‘결합(cohesion)’, ‘텍스트 구조’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어휘 분석은 특정 현상을 지시하는데 어떤 단어를 쓰느냐와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냐에, 문법 분석은 각 어휘들이 어떠한 규칙을 갖고 어떤 동사와 결합하는냐에, 결합 분석은 ‘그러므로’,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가 문장들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는지에, 텍스트구조 분석은 서로 다른 유형의 텍스트들이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그는 텍스트에 대한 언어분석을 텍스트의 형태와 의미 모두와 관련 짓고 있다. 텍스트의 이 두 가지 측면들을 대조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의미는 필연적으로 형태 안에서 실현되고 의미에서의 차이는 형태에서의 차이를 수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 개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이나 문장들조차 표현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이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지, 필자와 독자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는지, 필자와 독자 사이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하는지 등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을 토대로 텍스트에 대한 언어분석을 한다. 이 분석은 텍스트에서의 존재뿐만 아니라 부재(absence) 즉, 어떤 텍스트에서 드러나지 않는 표현, 필자와 독자의 범주, 필자와 독자의 정체성이나 그들의 관계 형성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Fairclough, 1992a, 1992b, 1995a, 1995b, 2001, 2003a, 2003b, 2015).

다음으로 담론실천에 대한 과정분석(processing analysis)이다. 이는 텍스트의 상호작용적 측면, 즉 개별 텍스트들이 재생산, 재분배 그리고 재해석될 때 그 과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페어클로(Fairclough)는 바흐친(Bakhtin)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도 한다. 바흐친(Bakhtin)은 “본질적으로 발화 혹은 텍스트는 다른 언술들과의 연관성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Fairclough, 1995b). 따라서 텍스트가 실제로 생산되고 분배되고 소비될 때,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미 사회구성원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사회구조, 관행 등에 제약을 받으며, 다음에 나오는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서 특정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담론의 유형, 장르, 문체 등의 관행이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주로 분석한다(Fairclough, 1995a, 1995b).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실천에 대한 사회적 분석(social analysis)이다. 이는 거시적 차원의 분석으로써,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텍스트적 실천이 담론적 실천을 통하여 현존하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구조화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페어클로(Fairclough)에 따르면, 담론적 실천이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의미들을 통합할 때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담론적 실천이 각종 이데올로기들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접합, 탈접합, 혹은 재접합함으로써 ‘상식’이라는 개념의 구성을 위해 헤게모니 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서덕희, 2003; Fairclough, 1992a, 1992b). 이때의 접합이란 홀(Hall)이사용한 개념을 따온 것이다. 홀(Hall)은 접합(articulation)은 특정한 조건 아래 두 개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형태라고 설명한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아무런 필연적인 소속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접합 될 수 있다는 것이다(Fairclough, 2003a, 2003b, 2015; Fairclough & Wodak, 1997).

2. 스포츠시설과 지역사회

가. 스포츠시설의 이해

오늘날 일반대중의 스포츠 활동 참가에 대한 욕구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Lipsitz, 1984). 스포츠시설이 우선적으로 참가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사회의 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임번장, 2004). 김필승(2005)은 스포츠시설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며 스포츠시설의 기능을 크게 운동부족해소, 체력기술향상, 스트레스해소 등의 운동기능, 피로회복 등의 휴식기능, 정보교환, 인간성 고취, 도덕심 고양, 사교의 장으로서의 사회적 교류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 체력상담, 운동처방, 기능 회복 등의 다양한 건강 상담 및 지식 정보서비스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시설은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 활동을 전제로 설치·관리되는 일정한 공간의 범위가 있는 물적 환경으로써 스포츠 활동, 관람, 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일체의 시설을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인공적으로 정비한 시설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협의의 개념은 운동학습을 위한 장소로써 공간적 개념을 좀 더 부각시킨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김사엽(2004)은 스포츠시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요구되는 지리적 조건과 물리적 조건을 모두 갖춘 하나의 장으로써 설명하였으며, 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용구와 장비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써 정의하였다. 허현미(1997)는 스포츠시설을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명하였고, 손영학(2002)은 스포츠시설이 현실적으로 민간단체, 공공단체가 주도하여 스포츠 활동의 목적

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환경이라고 말하였다. 고재곤, 김현석(2000)은 스포츠시설이란 크게 심신의 건강과 더불어 사회적 건강을 추구하는 장으로 볼 수 있으며, 시설의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정비하여 사회문화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 한다. Rosenberg(2015)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참가자 개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공간적·물리적 환경으로써 참여자의 스포츠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장비를 스포츠시설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은 스포츠를 위한 활동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설 그 자체가 스포츠 활동의 유도하고 유치하는 기능도 수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법률적으로 스포츠시설은 체육활동에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 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시설의 법적개념은 건전한 신체·정신함양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이러한 스포츠시설은 스포츠 활동의 터전으로써 운동을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간(space)이자 장소(place)로써 설명할 수 있다(Andrews & Carrington, 2013; Bennet & et al., 2013; Chiu, 2009; Hassan & Brown, 2014; Koch, N., 2017; Kural, 2010; Sam & Hughson, 2011). 스포츠시설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은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요건이며, 스포츠 활동 참여의 강력한 유인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Rosenberg, 2015). 최근 들어 건강과 체력의 유지 및 증진과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 스포츠시설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은 경제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생산하기도 한다(Sam & Hughson, 2011). 또한 사회문화적·경제적 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스포츠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이자 직접생산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문화

체육관광부, 2008). 스포츠시설은 운동을 위한 공간으로의 기능과 함께 사회복지시설로의 역할도 수행하며 지역공동체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사회 가치의 실현과 도시기능을 완성하고,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유지곤, 2004).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교육과 여가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활동 및 활동적 레크리에이션 가치의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그 추세는 필연적으로 스포츠시설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김사업, 2004). 그러나 여전히 많은 현대인이 장소와 시설의 부족을 스포츠 참여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스포츠시설의 보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곽정현, 서원석, 2016; 김사업, 2004).

나. 스포츠시설과 지역사회(community)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의욕과 흥미를 일으키고,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곽정현, 서원석, 2016; 김사업, 2004; Bennet et al., 2013). 또한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바람직하고 건전한 사회적 성격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며, 스포츠를 포함한 지역사회 문화의 보존과 개발을 가능하도록 한다(김미옥 외, 2015; Rosenberg, 2015).

지역사회의 발전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Hassan & Brown, 2014). 따라서 지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의 공동체화,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인간적 지역의 건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있어서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는 터전

을 제공하는 사회적 공간의 생성이라 볼 수 있다(Senkiewicz, 1998).

이러한 지역사회(community)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로 주민들이 봉착하는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 활동을 필요로 하며 이에 필요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라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으로 단정지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 지역주민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공통적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쉬우며, 지역 집단적 의식의 범주를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 등의 다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곽정현, 서원석, 2016; 이유찬, 윤중국, 2000a; Hassan & Brown, 2014).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1980년대 이후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의 국제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생활체육의 정책적 활성화와 국제적인 경쟁력의 강화는 생활체육의 정착과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은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확대에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웰빙(well-being)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민간 또는 상업적인 스포츠시설의 건립이 활성화 되었다(고재곤, 김현석, 2000; 서원석, 곽정현, 2016).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건전한 사회문화형성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개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과 스포츠 활동은 사회적 개발과 교육적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포츠시설을 통한 스포츠 활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주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행동 및 의식변화, 지역사회 개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고척스카이돔

고척스카이돔은 대한민국 최초의 돔 야구장으로써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완전 돔 형태의 대형 스포츠문화시설물이다(김종수, 2011; 박성배, 2016; 서울특별시, 2011). 2015년 개장 이래로 국가 대항전, 프로 야구, 아마야구, 문화공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초의 돔구장이라는 수식아래 지역사회와 야구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박재우, 2012). 이러한 이유에서 이해관계자와 대중들은 고척스카이돔과 관련한 논쟁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아마추어야구의 성지이자 요람인 동대문야구장의 철거부터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과정에서 나타난 부지선정, 설계변경과 예산증대, 완공시기의 연기와 같은 쟁점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대문야구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대한 대체구장 논의부터 시작된 고척동의 돔 야구장은 8번의 설계 변경과 예산증액 등의 많은 우여곡절 끝에 건립될 수 있었다(박재우, 2012). 따라서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얽혀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맥락(context)을 이해함으로써 고척스카이돔 건립의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가.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대체구장 논의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은 청계천 복원사업부터 진행되었다. 청계천 복원사업부터 시작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디자인 서울’ 정책,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건립,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그에 대한 대체구장논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렇듯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서울시의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2002년 당시 이명박 시장의 취임과 함께 시작되었다. 서울 도심 재개발계획의 한 부분으로 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물리적 구조의 복원과 하천의 복원이었다(정동구, 하웅용, 2004; 홍성태, 2004; Lee, 2017). 그리고 2005년 9월 공사는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해 동대문야구장을 주차장의 용도로 변경하면서 동대문야구장의 필요성과 철거에 대한 논의들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롭게 당선되며 당시의 ‘디자인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약으로 내세웠던 디자인플라자의 부지를 동대문야구장 주변으로 고려하였다. 아마추어 야구의 산실이자 대한민국 근대 스포츠의 요람인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대한 논의는 야구인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의 반발을 샀다(이병수, 2007; 정동구, 하웅용, 2004; Lee, 2017).

하지만 동대문야구장은 2006년 12월 철거되기 시작했다. 야구인들을 비롯한 체육계는 동대문야구장 철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철거를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는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따른 대체 구장을 요구하고 서울시에는 이에 합의한다. 결국 동대문야구장의 철거로 서울시의 부지에 7개의 대체 구장 건립이 계획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현재의 고척동 야구장이다(이병수, 2007; 홍성태, 2004). 본래는 아마추어 전용의 개방형 야구장을 계획했지만 현재는 프로전용 구장인 완전 돐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고척스카이돐의 현재의 모습으로 건립된 것이다. 이처럼 건립 이전의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고척스카이돐의 건립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나. 고척스카이돔의 현황

1) 고척스카이돔 개요

베이징올림픽의 야구종목 우승과 2009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의 좋은 활약으로 야구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는 고조되었다(김명권, 2012). 2016년 프로야구 관중 수는 역대 최고인 830만 명을 넘어섰으며,¹⁾ 그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야구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처럼 야구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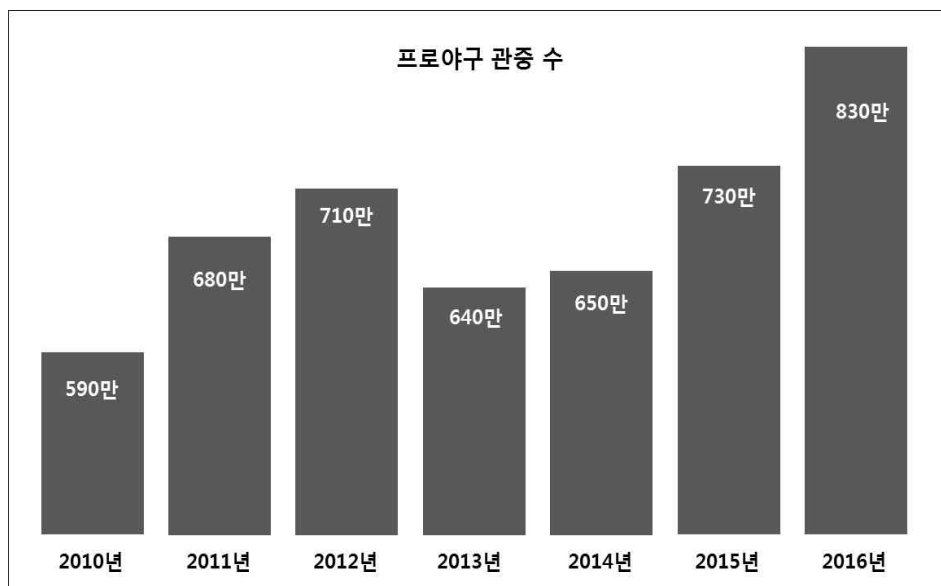


그림 3. 프로야구 관중 수

하지만 이러한 열기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의 시설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1982년에 출범한 프로야구는 비가 내리면 경기를 중단하거

1) 한국야구위원회(KBO) 홈페이지 www.koreabaseball.com

나 취소해버리는 악순환을 무려 30년 쯤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박재우, 2012). 또한 이미 WBC와 같은 국제적인 무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야구 실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돐구장 하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미국은 30개 구단 중 7구단이, 일본은 12개의 구단 중 6개 구단이 돐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박성배, 2016).

돐 야구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며 국내에서도 돐구장 건립 관련 논의가 대두되었다. 최초의 돐 야구장 건설 논의는 1990년대 중반에 있었다. LG그룹은 1995년 서울시에 전용구장 건립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전해 12월 서울시는 뜻밖에 돐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구상은 FIFA 월드컵을 유치한 축구계의 반발과 특혜 시비, IMF 사태 등으로 1997년 백지화되었다. 프로야구협회는 돐구장의 건설을 숙원사업으로 삼으면서 부지 검토를 여럿 시행하였으나, 재원 조달의 문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법률상 사기업은 스포츠 경기장을 소유할 수 없었기에 지자체의 지원을 얻어야만 했다. 따라서 일반 야구장보다 몇 배의 예산이 투입되는 돐구장의 건립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박재우, 2012).

현실적으로 돐구장의 국내 건립에 대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5년 11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돐구장이 건립되었다. 야구 국가대표팀의 우수한 성적, 아마 야구의 산실인 동대문야구장의 대체구장 논의, 프로야구와 야구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은 서울시의 정책 사업과 맞물려 대한민국 최초로 돐구장을 건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박성배, 2016; 박재우, 2012; 이병수, 2007; 최민규, 2015). 약 16,000여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부대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축구장, 농구장, 풋살장을 갖추고 있다.²⁾ 기후에 상관없이 4계절 내내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로 현재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Nexen Heroes)의 홈

2)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www.sisul.or.kr

구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제 야구 강대국에 어울리는,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언제나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돐구장이 새롭게 출현한 것이다.

2) 고척스카이돐 건립 과정

2015년 11월 4일 대한민국 최초의 돐 야구장이 개장하였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구로구 고척동에 완전 돐 형태의 대형 스포츠시설이 건립된 것이다.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구장 논의부터 시작된 고척스카이돐의 건립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2005년부터 이어진 건립 과정에서 입지, 교통, 설계, 소음, 예산 등이 문제가 되며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박재우, 2012; 최민규, 2015).

표 1. 고척스카이돐 건립 개요(출처: 서울시 공식문서 및 언론 자료 재구성)

일 시	내 용	비 고
1977.11.1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고척동 63-6일대	서울시고시 제401호
2005.8.23.	고척동 서울스포츠컴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458호
2006.1.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구로스포츠컴플렉스	
2006.7.1.	‘디자인 서울’ 선언 -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시 장 취 입 식
2006.8.	디자인 사업의 메카로 동대문야구장 지목	
2006.10.	동대문운동장 철거 발표 및 DDP 건설 계획 발표	
2006.10.25.	동대문야구장 철거 반대 성명 발표	야구계
2006.10.30.	동대문운동장 보존을 위한 스포츠인 100인 선언	체 육 인
2006.11.	동대문야구장 철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체구장 요구
2006.12.4.	프로야구선수들 촛불 시위 및 성명서 발표	
2006.12.20.	고척동체육시설부지 매입계획 수립	시 장 방 침 제554호
2007.2.	하프 돐 착공계 제출	
2007.3.19.	오세훈 시장 - 야구장 신축협의	7개 대체구장
2007.6.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7.7.26.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409호
2007.8.	하프 돔 형태 건립 결정	
2007.12	동대문야구장 철거 시작	
2008.2.	건립부지 확보	
2008.3.	동대문야구장 철거 완료	
2008.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8.9.	서남권문화체육시설 공사발주(조달청-529억원 발주)	
2008.9.10.	체육시설(야구장) 사업계획변경	시장방침 제493호
2009.1.5.	우선시공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2009.2.5.	공사착수(도시기반시설본부)-착공(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시공계약 체결
2009.3.	WBC 준우승	
2009.3-4.	구로구(3/27), 야구계(KBA, KBO-4/9) 돔구장 건립 건의 및 요청	
2009.4.16.	기공식 행사 (하프 돔->완전 돔 변경 발표 및 추가 돔구장 건립 계획)	최초 완전 돔구장 발표
2009.8.13.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계획수립 (하프 돔->완전 돔 변경 결정)	시장방침 제376호
2010.4-6.	서남권 돔 야구장내 수익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용역	
2010.7.16.	서남권 돔 야구장 사업계획변경 (수익시설 설치 및 에너지 효율등급향상) 시설관리주체변경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시장방침 제274호
2010.8.31.	돔 야구장 주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2010.10.8.	주변 교통 정리대책 추진 계획 (사업기간연장, 지하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 주차장 등)	시장방침 제453호
2011.1.8.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가 개정됨에 따라 완공연기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 설치가능
2011.3-8.	교통대책(보행데크, 구일역사성능개선) 타당성 용역	
2011.4.1.	교통대책(지하2층 주차장 추가) 투자심사 통과	
2011.6.28.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	
2011.7.20.	교통대책(보행데크) 투자심사 통과	
2011.10.6.	교통대책(구일역사 성능개선) 투자심사 통과	

2012.3.15.	외부 자문회의 개최	
2012.8.21.	돔구장 활용관련 자문회의(전문공연 시설개선 사항)	
2013.7.3.-5.	서남권 돔야구장 관련 국외(일본)출장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연예제작자협회	
2013.8.16.	서남권 돔구장 활용방안 마련 숙의 개최 계획	
2013.8.25.	서남권 돔 야구장 사업계획변경	시장방침 제233호
2013.10.15.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 경관조명계획-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의결조서-합격	서울시민 디자인위원회
2013.10.	서남권야구장 경관조명계획발표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2013.11.2.	서남권 돔야구장 활성화 및 서울시 야구발전을 위한 특별심포지엄 개최	
2014.5.	구로미디어센터 부지 사용계획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2014.6.20.	프로구단 유치를 위한 서남권 돔야구장 추가 시설개선 계획 수립(행정1부시장방침)	
2015.6.19.	서남권 돔구장 조직, 인력 적정성 검토 용역	
2015.9.15.	준공 및 프레스투어, 서울대 여자야구 국가대표 시범경기	
2015.11.04.	고척스카이돔 개장/한국-쿠바 서울슈퍼시리즈	
2016.4.1.	프로야구 개막전	

현재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부지는 1977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중 체육시설을 위한 용도로 결정되었다. 본래 유수지였던 이 지역은 2006년 서울시의 문화도시 서울 10년 계획인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의 추진과제로 구로스포츠컴플렉스를 건립한다고 계획되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취임식에서 ‘디자인 서울’을 선언하며 디자인 사업의 메카로 동대문야구장을 지목하며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건설 계획을 발표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 아마 야구의 산실인 동대문야구장의 철거를 놓고 야구단체와 체육인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다양한 방식으로 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7개의 대체구장 건립을

약속하며 결국 2007년 12월부터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작업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약속한 7개의 대체구장은 고척동유수지(1면), 구의정수장(1면), 신월정수장(1면), 난지한강시민공원(2면), 잠실유수지(1면), 공릉배수지(1면)로 정해졌다. 예정대로라면 고척동에 건립될 야구장은 동대문야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아마추어 전용구장으로 하프 돔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6년 WBC(World Baseball Classic) 4강,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 2009년 WBC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국가적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올랐다(박성배, 2016; 박재우, 2012; 최민규, 2015). 또한 국제적인 경쟁력에 어울리는 국내 야구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돔구장 건립에 대한 여론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당시 구로구청장과 야구단체의 강력한 주장으로 오세훈 시장은 2009년 서남권 야구장의 기공식에서 완전 돔 형태의 야구장 건립을 최초로 선포하게 된다. 선포 후 돔 야구장의 관리 주체를 서울시설공단으로 변경하였고, 야구장 주변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수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하철 역사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해 소음과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특별 심포지엄 개최, 외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야구단체 뿐만 아니라 공연, 문화, 예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이미 우수한 돔 야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의 야구장 건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11월,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돔 야구장의 건립되었다. 기대와 걱정 속에서 개장을 한 것이다. 개장은 했지만 여전히 고척스카이돔과 관련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8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 문제와 고척돔 주변의 교통문제였다. 약 500억의 예산이 무려 2400억까지 증가했으며 8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던 것이다. 또한 고척돔 일대는 만성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주위에는 주거 및 교육 시설이 대부분이고 야구장과 연계될 수 있는 이렇다 할 상업시

설이 없다. 수용 규모는 1만8,000여 석에 불과한데 지하주차장은 약 400대의 공간만이 확보되어있었다(지역공기업평가원, 2015). 또한 야구장 임대 수입만으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프로야구단을 유치하였으며 프로야구 경기와 문화 및 예술 공연을 겸하는 복합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2. 고척스카이돔 예산변경 현황 및 설명자료(서울시, 2014)

구분	공사비(누계)	방침일	변경내용
1	40,888	07.7.26	기존계획(하프 돔)
2	52,905	08.1.16	기념관 추가
		08.9.10	일괄입찰(턴키) 유찰에 따른 사업비 변경
3	105,822	09.8.13	완전 돔 변경
4	140,664	10.7.16	수익시설 및 에너지 효율 등급상향
5	158,371	10.10.8	지하2층 주차장 추가
6	197,159	11.4.11	보행광장 및 경사로 추가 설치
7	233,833	13.8.25	공연시설, 접근로, 관람객 편의시설 개선
8	236,683	14.6.20	프로구단 유치를 위한 추가시설 개선

2015년 11월 4일, 쿠바 대표 팀과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그동안 우려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치러졌던 경기”라고 평가했다. 우려됐던 소음 문제는 합격점을 받았다. 오성규 당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소음 문제는 잡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고척돔 지붕은 소음 차단을 위해 테프론 외막, 투명 차음막, 흡음내막 등 3중 구

조로 설계됐다. 양 총장은 “당장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하지만 개선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스포츠경기장 설계전문회사 로세티의 정성훈 이사는 “전 세계 어떤 경기장도 완공 시점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메이저 리그 구장들도 매년 크고 작은 리모델링을 한다. 정 이사는 “중요한건 경험의 확장”이라며 “서울시 뿐 아니라 구단, 팬의 뜻을 모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연고지 주민과 함께 하지 않는 구장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돔구장의 발원지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미 돔구장의 유행이 지났다. 1992년 볼티모어 캠프야즈의 개장은 복고풍 구장의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야구 전용에 비교적 소규모 관중석, 천연잔디, 그리고 ‘실외 구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00년대 지어진 구장들은 여기에 보다 현대적인 외관을 가미한 ‘리트로 모던(Retro Modern)’으로 분류된다. 현재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돔구장을 홈으로 쓰는 팀은 6개이지만 폐쇄형 돔구장은 트로피카나 필드 하나뿐이다. 1990년 이후 지어진 나머지 구장은 모두 개폐식 지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실내조명과 인조잔디가 미국 야구팬에게 ‘낡은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트로피카나 필드를 사용하고 있는 탬파베이 구단도 현재 새 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박성배, 2016).

그러나 개폐형 돔구장은 일반 돔구장에 비해 더 많은 건설 및 운영비용이 든다. 여름 장마가 긴 한국의 기후 조건, 그리고 향후 비시즌 국제 대회 유치 등에서 한국 야구에서 돔구장의 필요성은 크다. 일본의 경우도 도쿄돔 정도를 제외한 돔구장은 적자로 운영된다(박성배, 2016; 박재우, 2012; 최민규, 2015). 고척돔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국내 최초이자 유일’이라는 메리트와 서울이라는 입지 조건은 장점이다.

고척스카이돔은 야구장을 방문하는 야구팬들에게 새로운 야구장 문화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며 호응을 얻고 있다. 국

내 프로야구 경기와 더불어 유명 가수들이 콘서트를 갖기도 하며, 팬 미팅, 음악축제, 국가대표 평가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척돔을 찾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도심 한복판에 초대형 돔구장이 생겼다는 사실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을 것이다. 돔구장의 건설은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발생한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변화와 함께 고척스카이돔과 같은 새로운 스포츠시설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 사료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둘러싼 미디어의 담론을 살펴보고,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시설 건립에 대한 미디어의 담론이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Creswell(2012)은 특정 문제나 이슈에 대한 복합적이고 상세한 탐색이 필요하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고 한다. 질적 연구는 인간의 삶, 이야기, 사회운동, 상호관계 등을 주로 연구하며,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과정 또는 양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Strauss & Corbin, 1998).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대상의 관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의 담론, 그리고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이와 같이 스포츠시설 건립에서 나타나는 미디어 담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디어 담론분석과 심층면담, 문헌고찰의 질적 연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확률 표집방법 중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의도적 표집법은 연구자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 선정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의도적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척스카이돔은 대한민국 최초의 돔 야구장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점(박재우, 2012; 최민규, 2015)에서 고척스카이돔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였고, 크게 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의 세 가지로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였다. 각 주체들의 범주 속에서 2005년과 2015년 사이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해당기간의 산정 기준은 서남권 스포츠컴플렉스의 조성 부지로 고척동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고척스카이돔이 최초 개장한 2015년 까지를 고려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모집을 위해 먼저 범주화된 이해관계 집단을 세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S시의회, G구청, K동 주민센터, 야구단체에서는 야구단체 종사자와 프로야구지도자, S시 야구연합회, 지역사회로는 K동 상인회,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선정하였다. 선정 후, 각 집단에 대해 개별적인 연락과 방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선별하였다. 특히, 고척동의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계획이 처음으로 논의된 시점인 2005년부터 2015년 개장까지의 기간과 동일한 시간적 선상에 놓여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5년이 과거의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구 참여자의 선별이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와 직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연구의 참여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

체 3명, 야구단체 4명, 지역사회 2명, 전체 9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결과, 전체 9명의 연구 참여자 중 현재에도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이 이루어진 시기와 같은 집단에서 종사하는 연구자는 8명 이었으며, 1명의 참여자는 현재에는 그 당시와 다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담론과 인식을 위해 관련 집단의 연구 참여자를 선별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위원회)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배경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성별	구분	소속	근무(거주)기간	비고
#1	남	지자체	S시의회	8년	체육 관련 상임위 위원
#2	남	지자체	G구청	29년	체육행정 관련부서 팀장
#3	남	지자체	K동 주민 센터	27년	팀장
#4	남	야구단체	야구 관련단체	10년	엘리트야구담당
#5	남	야구단체	야구 관련단체 간부 및 프로야구지도자	36년	동대문야구장 철거반대 비상대책위원회
#6	남	야구단체	前 프로야구 지도자	26년	
#7	남	야구단체	前 S시야구연합회	7년	돔구장 건립관련 자문위원
#8	남	지역사회	K동 상인회 간부	13년	
#9	남	지역사회	D아파트 입주자대표	20년	야구에 관심

#. 연구 참여자 9명의 구체적인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참여자 #1

참여자 #1은 S시의회 시의원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문화체육관련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고척돔의 건립 공사 당시 수차례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실제로 고척돔의 건립과정에서 참여자 #1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S시의 문화·스포츠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 현재 S시의 문화체육시설의 조례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참여자 #2

참여자 #2는 현재 G구청의 체육행정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29년 여간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평소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며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았으며, 참여자 #2의 자녀가 실제 고척스카이돔에 유명 연예인의 공연을 보러 간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해서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었다.

• 참여자 #3

참여자 #3은 현재 K동 주민센터의 행정관련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여간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K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며 고척스카이돔의 주변에 거주하였다. 고척스카이돔의 방문 경험과 참여자 개인의 직업적 경험을 통하여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 참여자 #4

참여자 #4는 현재 야구 관련단체에서 엘리트야구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여간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 참여자 #5

참여자 #5는 야구 관련단체에서 간부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약 12년 여간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1982년부터 2008년까지 야구팀의 지도자로서 활동하였다. 약 36년 여간 야구 관련업종에 종사하였으며, 동대문야구장 철거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다른 누구보다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 참여자 #6

참여자 #6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야구팀의 지도자를 맡았으며 현재는 야구 관련단체의 간부로 재직하고 있다. 과거 선수로 활약하였고, 은퇴 후에는 약 26여 년 동안 지도자의 삶을 보냈다. 야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돔 야구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참여자 #7

참여자 #7은 S시의 야구연합회 간부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7년 여간 활동하였다. 현재는 야구와는 전혀 관계되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 고척스카이돔의 건립당시 외부자문위원으로 돔 야구장의 건립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았다.

• 참여자 #8

참여자 #8는 현재 K동 상인회의 간부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고척스카이돔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K동 상인회는 2015년부터 설립되었지만 이전에는 친목도모의 형태로 상인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상인회는 현재 상인회만의 SNS를 사용하여 소통하고 있다.

• 참여자 #9

참여자 #9는 고척스카이돔 주변 D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로 약 20여년간 거주중이다. 조카가 프로야구 선수이며 건립 당시의 사진들을 많이 남겨놓았을 정도로 야구와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미디어 담론분석,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문헌고찰

문헌고찰을 위해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둘러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연구에 활용된 문헌은 고척스카이돔 관련 연구의 결과물, 학술지 논문, 각종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보고서 등의 자료가 이에 해당된다.

나. 미디어 담론분석

미디어 담론분석은 주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서 나타난 담론을 알아보기 위해 페어클로(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사용하였다. 비판적 담론분석의 텍스트(text) 분석, 담론 실천(discourse practice), 사회문화적 실천(sociocultural practice)을 통해 고척스카이돔의 최초 건립 논의부터 개장까지의 과정에서 쟁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논의들이 사회적, 상황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담론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표 종합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온라인 기사들로 선정하였다. 이 다섯 개의 일간신문은 2016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신문사별 열독자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종합일간지 부문 가장 높은 발행부수를 기록하며 주류 신문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ABC협회, 2016). 이는 다른 언론 매체의 의제설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전홍주, 2011), 대중들에게 보

이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인식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담론을 도출해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의 분석을 위한 뉴스기사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구축한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BIGKINDS) 서비스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카인즈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뉴스기사는 각 일간지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를 통한 검색의 키워드는 ‘고척돔’, ‘고척동 야구장’, ‘서남권 야구장’이었으며 ‘고척스카이돔’이라는 야구장의 이름은 2015년 9월 시민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므로 검색 키워드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검색 기간은 서남권 문화체육시설의 부지로 고척동이 논의되었던 2005년 8월 23일부터 고척스카이돔의 최초 개장일인 2015년 11월 4일까지이며, 검색 범위는 ‘제목+본문’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뉴스기사와 함께 기획기사, 칼럼, 사설 등의 형태도 포함시켰으며, 기사의 내용이 중첩되거나 본 연구의 방향성과 벗어나는 기사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조선일보 25건, 중앙일보 21건, 동아일보 17건, 한겨레 18건, 경향신문 19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4. 담론분석 대상

구 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키워드	‘고척돔’	5	8	12	9	18
	‘고척동 야구장’	22	24	7	22	23
	‘서남권 야구장’	9	14	5	8	20
최종 선정기사		25	21	17	18	19
계		100				

다.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인식을 탐색할 것이다.

심층면담은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9명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은 문헌고찰과 미디어 담론분석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면담의 범위 및 내용을 선별하였다. 면담 질문은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 비구조화된 면담을 혼용해 진행하였다. 또한 자유롭게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술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면담 실시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유선 연락을 통해 참여자에게 배경과 목적, 면담 결과의 활용 등 연구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 설명하여 1차 동의를 얻은 후, 약속시간 및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면담은 기본적으로 한 연구 참여자 마다 1회씩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면담에 앞서 예비면담이 필요할 경우 예비면담을 실시한 뒤, 본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면담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참여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실제 면담은 조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페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1회 면담시간은 대체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심층면담 이후 정보가 필요할 때는 추가면담의 실시 또는 SMS, 이메일, 메신저를 활용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기를 통해 녹취하였다. 녹음된 파일은 암호화되어 연구자 개인 PC에 철저한 보안관리 하에 보관하였다. 또한 면접노트를 작성하여 면접 시 발생하는 특이사항, 애로사항, 연구문제 관련 아이디어 등을 기록하였다. 연구가 종료됨과 동시에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담 녹음파일은 즉각 폐기할 것이다. 면담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표 5. 심층면담 주요 질문지

구 분	항 목	내 용
건립 과정	완전 돔	개방형 지붕에서 완전 돔 형태로 바뀐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 변경	8번의 설계 및 예산 변경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돔구장 추가건립 논의	추가적인 돔구장 건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립 예산안 부결	돔구장 건립 예산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	고척스카이돔의 디자인은 어떤가요?
	최초의 돔 야구장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전용구장	프로전용구장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넥센 히어로즈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대문 야구장	동대문야구장 철거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구장	동대문야구장의 대체구장 건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 효과	야구 저변확대	고척돔의 건립으로 야구 저변확대와 관중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나요?
	공공재적 역할	고척돔의 공공재적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 대회 유치	돔구장 건립으로 국제대회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기후조건	기후조건에 상관없는 돔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랜드마크	랜드마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경제 활성화	고척돔이 건립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역발전	고척돔이 건립됨으로써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세요?
	부대시설	고척돔의 부대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연개최	야구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 쟁점	소음, 불빛문제	야구장의 건립으로 소음, 불빛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0억 원의 건립비용	3000억 원의 건립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고척돔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건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선정	부지선정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교통문제	고척동 지역의 교통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권 논의	고척돔의 운영권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갈등	고척돔의 건립과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자료 분석 및 해석

가.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과 텍스트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담론의 사회적 실천을 나타냄으로써 기존의 담론분석과는 달리 담론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간의 괴리와 간극을 보완하는 하나의 분석 방법이다(김학실, 2015; Fairclough, 1995a, 1995b). 주로 푸코에 의해 영향을 받은 담론 이론은 언어와 상징, 기호와 상상의 영역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내재하며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 대해 분석을 주로 수행하였다(Fairclough, 2003a, 2003b). 이는 담론이론이 담론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생산, 소비, 분배를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비판적 담론분석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담론분석과 비교하여 더 정교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페어클로는 푸코가 주장한 담론에 대한 관점을 보다 세밀한 텍스트 분석들과 결합하여 언어연구에 사용되는 미시적 분석과 사회적 속성을 연구하는 거시적 분석 간의 간격을 좁히고자 한 것이다(Mills, 1997). 이 때, 미시적 분석은 문장이나 발화들이 대화, 텍스트, 이야기 등의 담론으로 결합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담론구조 분석과 사람들이 담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해 관심을 갖는 연구 등을 포함한다(Fairclough, 1995a, 1995b, 2015).

언어연구에서 담론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의미하며, 푸코의 담론이론에서 담론은 ‘지식의 한 형태’로서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한다. 페어클로는 언어연구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푸코의 담론에 대한 의미를 결합시킴으로써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분석틀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비판적 담론분석은

다양한 제도의 관계망, 접합과정 속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언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언어의 능동성, 수행성, 제도성과 언어 간 접합과정에 주목하는 방법으로써 담론과 사회의 권력구조, 이해관계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밝히는데 유용할 수 있다(Fairclough, 2003a, 2003b).

페어클로가 제시하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분석틀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 가능하다. 그의 담론분석 방법은 텍스트 분석, 담론 실천, 사회적 실천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텍스트와 담론실천과의 관계, 담론실천과 사회문화적 실천의 관계에 관해 나타내는 사회적 분석으로 이루어진다(Fairclough, 1992a, 1992b).

지금까지의 담론분석은 대부분 문자언어로 표현된 기호학적 텍스트의 이해나 영상언어로 표현된 영상이나 미디어 이미지의 이해를 중심으로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류웅재, 2010). 하지만 텍스트를 계량적으로 이해하는 내용분석법은 텍스트가 사용된 이면의 맥락적, 사회적, 배경적 요인을 간과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현상에 대해 통찰력 있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연구의 목적, 범위를 한정지어 분석하거나 왜곡하여 이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최진호, 류웅재,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자체의 내용분석법이 아닌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담론분석이 적절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특히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 이면에 내재된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라는 기호학적 매개체를 통하여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회의 특정한 단체, 조직과 같은 집단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정책 결정 과정,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져 가치 및 제도로 정착화 되는 과정, 새로운 산업 영역의 탄생, 지배와 종속, 두 관계가 하나의 가치 혹은 세계관으로 성립되는 과정 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Fairclough, 1995a).

나.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Creswell(2012)이 제시하였던 질적 연구 자료의 분석방법 6단계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효율적인결과 도출 및 아이디어 획득에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는 바로 전사 작업을 진행한 뒤, 주요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전사 작업은 연구자가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 본인이 직접 면담 직후 실시하였다.

5. 연구의 타당성

연구의 타당성은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된 것으로 연구자는 연구 진행과정 동안이나 연구가 끝난 후에도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구성원간 검토(member check),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동료간 협의(peer debriefing)의 방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6.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 윤리성을 위해 연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확인하고 방지하기 위해 소속 대학교의 연구심의(IRB)를 의뢰하였고, 2017년 12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한 연구자는 다음의 윤리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발생 시,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주고, 바로 연구를 멈출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절대 기술하지 않으며, 연구 참여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익명 처리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획득한 자료는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시켜 보관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음을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할 것이다. 다섯째, 중도탈락자의 자료는 즉시폐기 할 것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의 연구 안전성에 대한 배려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진행된다.

IV.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둘러싼 미디어 담론은 서울시의 서남권 야구장 건립이 최초로 논의되었던 2005년부터 2015년 고척스카이돔의 개장까지 지속적으로 생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5개의 신문매체(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는 다양한 시각에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개장이후에도 국내 최초의 돔 구장으로써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과정에서 형성된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쟁점들 속에 내재되어있는 의미들과,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context)적 상황을 살펴보려한다. 또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해 미디어에서 어떻게 담론화되고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고척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의 함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리 선정한 5개의 신문매체를 통해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크게 ‘최초의 돔구장 건립’,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완전 돔구장과 꿈의 지붕’, ‘입지와 예산에 대한 비판’, ‘지역사회와의 공존’의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최초의 돔구장 건립 : 새로운 야구장의 탄생

주요 텍스트		
최초의 돔구장	국제대회의 유치 기대	랜드마크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상징성과 희소성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이라는 상징성과 희소성을 강조하며 미디어에서는 최초의 돔구장, 국제대회의 유치 기대, 랜드마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다.

가. 최초의 돔구장

최초의 돔구장 담론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항목으로는 국제대회 입상, 최초의 돔구장, 돔구장의 확산, 기후조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국제대회 입상	한국 야구는 2006년 4강, 2009년 준우승을 기록했고 프로 10개 구단 체제를 눈앞에 뒀다…날씨와 인프라 등을 이유로 이번 1라운드는 한국이 아닌 대만에서 치러졌다(중앙일보, 2013.03.06).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윌리엄스포트 라매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 68회 리틀리그 월드시리 결승전을…미국을 완파하고 29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오른…(동아일보, 2014.09.15).
	야구계는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3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프로야구 최다 관중 돌파로 들떠 있다(동아일보, 2009.12.16).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과 입상은 국내 돔구장의 유치에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베이징올림픽부터 WBC(World Baseball Classic)까지 국제대회에서의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활약으로 현재 야구 관중 1000만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하여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과 관련지어 표현하고 있었다. 주로 ‘2006년 WBC 4강’,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 WBC 준우승’, ‘69회 리틀리그 우승’의 텍스트를 사용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초의 돔구장	<p>유영구 KBO 총재에겐 올해 세 가지 소원이 있다. 프로야구 관중 600만 돌파, 광저우 아시안게임 우승, 구장(球場) 신축이다. 새 야구장의 필요성은 2006년 WBC 4강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조선일보, 2010.07.29).</p> <p>서울시는 15일 구로구 고척동의 서남권 야구장을 완전 돔구장으로 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초의 완전 돔구장 건립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강승규 대한야구협회 회장 등의 건의를 받은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중앙일보, 2009.04.15.).</p> <p>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국내 최초로 ‘하프 돔 야구장’이 생긴다. 서울시는 가칭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에 따라 철거될 동대문야구장을 대체하는 ‘서울 하프돔 야구장’을 2010년 3월까지 고척동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경향신문, 2007.11.23).</p> <p>‘한국 최초의 돔구장’인 서울 구로구 고척돔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중앙일보, 2015.07.03.).</p>
------------	---

최초의 돔구장과 관련하여 주로 수식어구 ‘최초’의 표현을 통해 건립되는 고척스카이돔이 국내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디어의 담론에 따른 수용자들은 고척스카이돔을 국내 최초로써 각인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p>돔구장의 확산</p>	<p>“팬들의 성원에 보다 더 좋은 구장 시설로 보답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유 총재는 “조만간 서울과 부산에 돔구장 설립 안이 구체화되고 명예의 전당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2010.05.31).</p> <p>오세훈 서울시장도 또한 고척동 야구장 건립 부지에서 열린 ‘서남권 야구장’ 기공식에서 3만석 이상의 돔구장을 추가적으로 짓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돔구장이 2~3개 정도 필요하다”며 2만석 규모의 서남권 야구장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3만~4만석의 관람석을 갖춘 돔구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야구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09.04.17).</p>
-----------------------	--

또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통해 추가적인 돔 구장의 건립에 대한 담론도 나타나고 있었다. 최초의 돔 야구장 건립이 후속 돔 구장이나 후속 대형스포츠시설의 건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도시인 ‘서울’과 ‘부산’이 주로 그 대상도시로 지목되었다.

<p>기후조건</p>	<p>돔 지붕형으로 야구장이 건립될 경우 우기를 포함한 혹서기 및 혹한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실내조건으로 연중 상시 사용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다(중앙일보, 2011.04.28).</p> <p>돔구장이 생기면 야구팬들은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비가 내릴 때도 경기가 취소되지 않고, 냉난방 시설을 통해 추위와 더위도 피할 수 있다. 고척돔은 여름철 26~28도, 겨울철 18~20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햇빛에 눈이 부시거나 주변 소음에 방해받지 않아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조선일보, 2015.05.20).</p> <p>야구장이 관람석과 경기장 모두를 100% 덮는 전면 돔 방식으로 건립되면 야구팬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야구경기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야구 경기에 따른 소음과 야간 조명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다(경향신문, 2009.04.15).</p>
--------------------	--

돔구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기후에 상관없이 야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디어는 ‘우기를 포함한 혹서기 및 혹한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실내조건으로’,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라는 표현을 통해 담론하고 있었다. 4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기후 여건상 돔구장의 건립은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나. 국제대회의 유치 기대

국제대회의 유치 기대	<p>...올해까지 24회의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한국은 한 번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동아일보, 2010.10.09).</p> <p>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7년 1라운드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3월 초에도 꽤 쌀쌀하기 때문에 대회를 치를 수 없었다. 그러나 서울 고척돔구장이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경기장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중앙일보, 2013.03.06).</p> <p>KBO 류대환 홍보지원부장은 “이번 대회에도 추진 의지는 있었다. 하지만 국내 날씨 문제가 있어 돔구장과 같은 시설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 고 말했다(경향신문, 2013.03.06).</p> <p>KBO는 고척돔 건설 덕에 11월 이후에도 추운 날씨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선일보, 2015.05.20).</p>
----------------	---

기후에 상관없이 야구를 할 수 있는 돔 야구장의 건립은 지금까지 인프라 부족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국제대회의 유치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미디어의 담론도 찾아볼 수 있었다. 돔 구장의 건립으로 한 번도 개최한적 없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개최의 기대감이 나타났다. 실제로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는 한국에서 개최가 되었지만 당시 고척돔의 건립이 진행되던 단계로 잠실구장과 목동구장에서 대회를 분산 개최하기

는 했다. 또한 프로야구의 휴식기인 11월부터 3월까지 쌀쌀한 기후 탓에 개최가 힘들었던 다양한 야구 이벤트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내 날씨 문제가 있어 돐구장과 같은 시설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라는 표현에서 고척스카이돐의 건립이후 개최될 수 있는 국제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다. 새로운 랜드마크

<p>랜드마크</p>	<p>대형 돐구장은 최첨단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건물로 한 도시의 경제적·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서남권 야구장은 향후 서울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중앙일보, 2011.04.28).</p> <p>서울시는 이날 오후 기자단을 초청해 내부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우리도 이제야 돐구장을 가지게 됐다. 이 돐구장이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한겨레, 2015.09.15.)</p>
-------------	--

또한 고척스카이돐의 건립이 고척동과 구로구, 서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담론들이 존재하였다. 담론들은 주로 고척돐의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국내최초라는 수식어를 통해 랜드마크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대형 돐구장의 건립을 도시의 경제적·문화적 지표로써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담론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보였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 ‘서남권의 랜드마크이자’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가 내부적으로 고척스카이돐의 랜드마크화를 부추기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었다. 최초 개장 전, 기자단과 VIP를 초청하여 내부시설을 공개하는 일련의 행위들마저 돐구장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 노스탤지어(nostalgia)와 과거의 재현

주요 텍스트	
동대문야구장의 보상	아마추어 야구성지의 재현

동대문야구장의 철거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고척스카이돔은 미디어를 통해 ‘동대문야구장의 기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근대 스포츠의 역사이자 야구의 산실인 동대문야구장의 가치와 철거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디어는 이를 동대문야구장의 보상, 아마추어 야구성지의 재현으로 고척스카이돔을 표현하고 있었다.

가. 동대문야구장의 보상

동대문야구장의 보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항목으로는 동대문야구장의 가치,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대체구장에 관한 내용이었다.

동대문 야구장의 가치	<p>동대문구장은 한국 야구 100년사에서 최초의 번듯한 전용 야구장이었다(조선일보, 2007.03.19.).</p> <p>야구인들의 성지(聖地)로 통하는 서울 동대문야구장이 오는 11월 철거된다…동대문야구장은 1959년 8월 문을 열었다. 그 전에는 1926년 지어진 경성운동장(동대문운동장)에서 야구경기가 열렸다…1960~70년대 실업·고교야구 전성기를 거쳐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까지 한국 야구사 그 자체였다(조선일보, 2007.03.20).</p>
-------------------	---

미디어 담론은 동대문야구장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 사며 동대문야구장을 기억하였다. ‘한국 야구 100년사에서 최초의 번듯한 전용 야구장’ 과 ‘야구인들의 성지’, ‘한국 야구사 그 자체’ 로 동대문야구장을 표현하며 야구장의 가치에 대해 논하였다.

<p>동대문 야구장의 철거와 대체구장</p>	<p>서울시가 이곳에 야구장을 짓는 건 동대문야구장을 허무는 데 따른 후속 대책의 성격이다. 시는 야구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고척동 야구장을 국제 규격에 따른 경기장으로 짓고 구의정수장과 난지공원 등 나머지 6곳에 간이야구장을 짓기로 했다(한겨레, 2007.11.23).</p> <p>서울시는 2007년 ‘아마추어 야구의 메카’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고 대신 고척돔을 짓고 있다. 양 총장은 “잘 있던 동대문야구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디자인 센터를 만들면서 야구 관계자들과의 논의는 거의 없었다” 고 했다(동아일보, 2012.12.15).</p> <p>서울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파크 조성 사업 때문에 철거되는 동대문야구장 기능을 일부 대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유소년 야구장 건립 계획의 하나로 공릉 유소년 야구장을 개장한다” 고 밝혔다(조선일보, 2008.11.20).</p> <p>서울시는 지난 해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는 대신 구의 야구장과 신월 야구장, 고척동 하프 돔 구장 등을 지어주기로 대한야구협회 등 야구계와 협약을 맺었다(조선일보, 2008.03.10).</p>
--------------------------------------	---

동대문야구장의 가치를 나타내며 한편으로는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찾아볼 수 있었다.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그로 인한 대체구장의 논의에 대한 내용이었다. 실제로 동대문야구장의 철거로 서울시는 야구협회에게 공릉, 신월, 구의, 난지, 잠실, 고척동 7개의 대체야구장 건립을 협의하였다.

나. 아마추어 야구성지의 재현

<p>아마추어 야구성지의 재현</p>	<p>이르면 올 연말 철거공사에 들어가는 동대문운동장 야구장을 대신해 ‘아마야구의 산실’ 역할을 할 새 야구장이 오는 2010년 서울 구로구 고척동 안양천변에 들어선다…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대회 등 한국 야구 역사의 축을 이뤄온 주요 아마추어 대회들도 앞으로는 이곳에서 열리게 된다(조선일보, 2007.11.22).</p> <p>동대문야구장, 1925~2007 “82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선일보, 2007.11.14).</p> <p>고척스카이돔은 애초 동대문운동장이 사라지면서 아마추어 야구를 위한 대체구장으로 건립논의가 시작됐으나...(경향신문, 2015.09.15).</p>
------------------------------	--

아마추어 야구의 성지였던 동대문야구장의 역할을 고척스카이돔이 재현할 것이라고 했다. 동대문야구장이 철거되지만 그 역할을 고척돔이 대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아마추어 야구의 새로운 장을 예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완전 돔으로 형태가 변경되며 프로전용 야구장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당시에는 ‘동대문운동장 야구장을 대신해 아마야구의 산실 역할을 할 새 야구장’, ‘주요 아마추어 대회들도 앞으로는 이곳에서 열리게 된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현재는 동대문야구장의 아마추어 야구성지의 역할을 목동 야구장이 수행하고 있다. 목동 야구장은 원래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이었으나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함께 홈구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야구협회는 목동 야구장을 아마추어 전용 야구장으로 사용할 것을 협의하였다.

3. 완전 돔구장과 꿈의 지붕 : ‘꿈은 이루어진다’

주요 텍스트	
개방형에서 완전 돔으로	꿈의 지붕

최초 논의 되었던 개방형 구장에서 하프 돔 형태로, 다시 완전 돔 형태로 고척스카이돔의 설계는 변경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완전 돔구장을 뒤덮고 있는 지붕에 대해 미디어 담론은 ‘꿈의 지붕’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과 야구인의 숙원사업인 돔 구장의 건설에 대해 하프 돔에서 완전 돔으로 설계가 변경된 사실과 고척돔 구장의 지붕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개방형에서 완전 돔으로’

개방형에서 완전 돔으로	지붕을 반쯤 씌운 ‘하프 돔’으로 건설하려다 야구 대표팀의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 2009년 WBC 준우승 등 분위기 속에 지붕을 완전히 씌우는 완전 돔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 아마추어 야구를 위한 경기장으로 건설이 시작 됐지만, 2013년 8월 프로야구를 위한 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됐다(조선일보, 2015.05.20).
	당초 하프돔 형태로 설계됐던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돔구장이 지붕을 완전히 덮는 ‘ 완전 돔(Dome) ’으로 건설된다. 서울시는 운동장 골조를 세우고 막으로 지붕을 완전히 덮는 골조막 방식으로 돔구장을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조선일보, 2009.09.10).
	WBC 준우승으로 고조된 국민적 야구열기 속에 서울시는 야구계의 건의를 전격 수용, 당초 25% 지붕 덮는 구조로 건립 중이던 ‘ 하프 돔 ’ 설계를 100% 덮는 ‘완전 돔’ 구장 방식으로 변경해 건립하기로...(중앙일보, 2009.04.16).
	서울 고척동에 ‘돔 야구장’ 추진...서울 구로구가 우리나라 최초의 돔

	<p>‘구장 건설을 추진한다. 구로구는 고척동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하프 돔 야구장을 국내 최초의 돔구장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향신문, 2009.03.30).</p> <p>2009년 첫 삼을 뜬 이후 완공까지 무려 2413일이 걸렸다…설계가 8번이나 변경된 끝에…지붕을 반쯤 씌운 하프 돔에서 완전 돔으로 바뀌었고…(조선일보, 2015.09.16).</p>
--	--

고척스카이돔은 애초에 개방형 야구장으로 아마추어 전용 구장으로 사용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8번의 설계 변경 끝에 하프 돔에서 다시 완전 돔으로 변하게 되었다. 미디어 담론은 설계의 변경에 따른 부정적 시각보다는 완전 돔구장이 건립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 꿈의 지붕

	<p>대한야구협회(KBA), 한국야구위원회(KBO),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등은 지난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모든 야구인과 야구 단체, 야구 팬의 희망이자 숙원사업인 돔구장이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내고…(조선일보, 2010.10.19).</p>
꿈의 지붕	<p>한국야구 ‘꿈의 지붕’ 덮는다…한국 최초의 돔 야구장이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선다(조선일보, 2009.04.16).</p> <p>야구인과 야구팬들의 숙원이던 돔구장이 지어질 수 있을까. 지난 24일 막을 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준우승하면서 돔구장 건설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한겨레, 2009.03.30).</p>

또한 ‘모든 야구인과 야구단체, 야구팬의 희망이자 숙원사업인 돔구장’, ‘꿈의 지붕’, ‘야구인과 야구팬들의 숙원이던 돔구장’ 등으로 나타내며 완전 돔구장 형태가 된 고척스카이돔을 나타냈다. 지붕이 덮임으로써 야구계의 염원이 이루어졌고, 또한 하프 돔 보다는 완전 돔을 선호한다고 나타나고 있었다.

4. 입지와 예산에 대한 비판 : 애물단지로의 전락

주요 텍스트	
부적합한 입지 선정	돈 먹는 괴물

고척스카이돔은 건립이 최초 논의 되었던 시기부터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가장 큰 요인은 부지선정의 문제였다. 아마추어 전용 경기장에서 완전 돔 형태가 되어버리며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로 지역과 돔구장의 입지로는 비좁은 부지, 3000억 원 애물단지, 돈 먹는 괴물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

가. 부적합한 입지 선정

입지, 교통문제	교통혼잡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된다. 돔구장은 서부간선도로와 경인로, 양천로가 근접한 곳에 위치해 상습 정체구간 으로 꼽힌다(경향신문, 2015.09.15).
	10월 개장 앞두고 ‘ 교통 딜레마 ’ 부지 좁고 도로 끼고 있어 늘리기 한계…사업비 치솟아 지하공간 확충도 무리 市 “대중교통 이용유도” …효과 의문… 고척돔 앞 경인로의 상습 정체도 주차장을 막는 요인이다…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도로 서비스 수준이 E급 (방향 조작 및 속도 선택 불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동아일보, 2015.08.11).
	고척돔은 네 차레나 설계를 변경했다. 정체도로 사이에 홀로 우뚝 선 고척돔은 확장성과 시장성 면에서도 낙제점 이다. 이곳은 애초에 3000억 원을 들여 돔구장을 세우기엔 적합하지 않은 부지 였다(중앙일보, 2014.12.23).
	선수협회는 서울 고척돔을 예로 들며 “ 잘못된 부지 선정 으로 시민과 야구팬에게 외면 받고, 혈세 낭비 까지 유발한다면 그 책임은 창원시가 져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는 “ 시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에 야구장을 짓겠다는 창원시의 발상은 말도 안 된다” 라고 비판했다(경향신문, 2013.09.26).
--	---

건립 부지 선정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미디어는 담론하고 있다. 아마추어 야구장이 건립되었다면 견뎌낼 수 있던 문제지만 완전 돐 형태의 프로야구장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교통혼잡’, ‘상습 정체구간’, ‘도로 서비스 수준이 E급’, ‘잘못된 부지선정’ 등의 표현을 통해 입지선정과 교통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담론이 나타나고 있다.

나. 돈 먹는 괴물

애물단지	<p>고척돔 돐구장 자체도 사실 야구계의 뜻보다는 정치 논리로 탄생한 구장이다. 서울시가 아마추어 야구의 요람인 동대문야구장을 허무는 대신 지어주려고 했기 때문이다(동아일보, 2010.10.19).</p> <p>서울시의회는...구로구 고척동에 1407억 원을 투입해 서남권 돐 야구장을 신축하는 안 역시 투자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중앙일보, 2010.10.16).</p> <p>설계가 8차례나 변경된 끝에 공사비는 2443억 원으로 급증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한국의 첫 돐 야구장을 짓는 동안 철학과 비전은커녕 최소한의 계획조차 찾을 수 없었다(중앙일보, 2015.09.15).</p> <p>국내 첫 돐구장 주인 맞이...벌써부터 ‘뚜껑’ 열리겠네...고척돔 광고, 운영권 등 놓고 서울시와 히어로즈 입장 차...지하철 멀고 주차시설도 좁아...히어로즈 “솔직히 들어가기 싫다” (한겨레, 2015.01.06).</p> <p>시간이 갈수록 고척돔을 둘러싼 잡음은 커지고 있다. 고척돔은 3000억 원짜리 괴물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실무자만 탓할 수는 없다. 고척돔은 역사를 보존하고, 거시적 시각에서 도시를 계획하는 철학의 부재가 만들어낸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p>
------	--

	<p>(중앙일보, 2014.12.23).</p> <p>395억 들여 또 설계변경…고척돔, 애물단지 피할까…고척돔은 야구장을 운영할 프로야구단이 나타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중앙일보, 2013.09.11).</p> <p>“쏟다는 팀이 없네” 고척돔 돔구장 적자 걱정…야구계 숙원 내년말 완공… ‘돈 먹는 하마’ 전략 우려…세금 먹는 적자구장 되나(동아일보, 2012.07.16).</p> <p>만루홈런 장담 원순씨의 ‘삼중살 야구정책’ …프로야구의 꿈 아웃…아마추어 야구의 꿈 아웃…1000만 서울 시민의 꿈 아웃(동아일보, 2012.11.24).</p>
--	--

또한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문제, 교통문제, 입지문제, 소음문제, 적자 걱정 등의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이 나타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디자인 정책에 따른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증액에 대한 투자 적정성 재검토, 예산안 부결 등의 사실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돔에 아무런 생각없이 지붕만 씌웠다는 일각의 의견과 ‘3000억 원 짜리 괴물’, ‘애물단지’, ‘돈 먹는 하마’, ‘세금 먹는 적자구장’, ‘기형아’ 등으로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으로 인식을 보여주었다.

5. 지역사회와의 공존 : 논제로섬게임(non-zero sum game)

주요 텍스트	
지역발전	지역마찰

대형스포츠시설의 건립은 고척동의 지역사회에 새로운 환경으로 돔구장 주변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고척스카이돔 역시 건립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과 갈등이 함께 발생하고 있었다.

가. 지역발전

지역발전	<p>“경기장은 전체 도시발전 계획안에서 지어져야 한다. 경기장 하나만 짓지 말고, 주변 상권을 함께 발전시켜야 구단도 수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한국은 토지만 확보되면 짓는 경우가 있다. 30년 뒤를 내다본 스포츠 구장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중앙일보, 2013.11.19)</p> <p>...고척돔 일대에 10~20대 여성 2만 2000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주변 편의점, 분식점 등이 특수를 누렸다(조선일보, 2015.10.30).</p> <p>고척돔에 ‘문화’를 입히자...지금이라도 고척동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인근 대학의 스포츠관련학과 학생들을 위해 개방해야 하며 심지어는 스포츠 전문대학 유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장사는 3년이고 문화는 30년, 곧 한 세대를 창출한다...이럴수록 문화전문가를 구해 강렬하고도 싱싱한 한국 최초 돔구장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경향신문, 2015.10.26).</p> <p>아시아의 음악과 춤을 즐긴다...30일 고척스카이돔서 ‘구로아시아문화 축제’ 개막...아시아 음악과 춤을 비롯해 각 국의 먹거리와 볼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다(경향신문, 2015.10.27).</p>
------	---

	<p>“여기서도 경기장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다고 구단을 이전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솔직히 넥센이 있어서 이 곳에 있는 다른 상업시설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13.07.24).</p> <p>구로 고척교 왕복 10차로로 넓힌다…서울시는 서남권 돔 야구장이 문을 열 경우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 200억 원을 들여 차로를 확장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고척교에 버스정류장도 신설해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조선일보, 2012.01.09.).</p> <p>문화예술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구로…대학로와는 또 다른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문화예술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예전에는 문화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 거리감이 있었지만 여러 공연장이 들어서면서 볼거리가 많아졌다…구로구 일대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조선일보, 2009.09.08.).</p>
--	---

고척스카이돔이 건립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미디어 담론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전체 도시발전과 어우러질 수 있게 계획되어야 하며 주변상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야구장이 아닌 공연장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경기장의 주변 상권이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편의시설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또한 고척돔의 건립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새로운 문화공연들이 생기고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주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로 교통상습구간이었던 고척로의 도로확충과 버스정류장 신설, 지하철 입구 보수 등은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나. 지역마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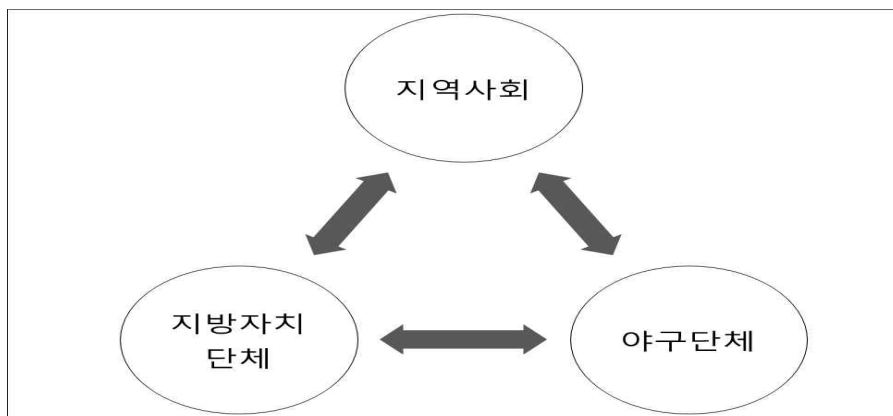
지역마찰	<p>서울시는 제 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고척동에 짓고 있는 서남권 돔 야구장에 유아 놀이·교육시설과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돔구장의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는 유아 놀이·교육시설과 사우나 및 스파가 설치된다(한겨레, 2010.11.05).</p> <p>현재 신축 중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서남권 돔구장에 점포 등 수익시설을 추가하는 ‘돔 야구장 변경 안’을 서울시의회가 부결시킨 것에 대해 야구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야구협회(KBA)와 한국야구위원회(KBO),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 등은 17일 공동 성명서를 내 “2012년 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 의회가 투자 적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수익시설과 친환경에너지시설 설치 계획을 부결시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돔구장 신축을 위해 서울시의회는 필요한 계획과 예산을 승인해야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010.10.18).</p> <p>…10년째 고척돔 인근에 살았다는 김강호(45)씨가 근처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물었다. 몇몇 여성은 남자화장실에 막무가내로 들어갔다(조선일보, 2015.10.30).</p>
------	--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작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이 지역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수익시설의 설치에 고척스카이돔 주변의 지역 상권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건립되고 난 후의 교통정체와 소음, 불빛 공해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다. 또한 문화공연의 경우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의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V.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인식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한 주체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고척돔의 건립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고척돔 건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선정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고척스카이돔 건립 최초 논의부터 개장까지의 기간) 사이의 미디어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내재된 의미들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미디어 담론뿐만 아니라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과정은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편향된 목적의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관한 미디어의 담론분석과 더불어 고척돔 건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미디어 담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보다 실질적으로 고척돔의 건립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은 ‘돔구장의 건립에 대한 인식’, ‘설계 변경에 대한 인식’, ‘야구 발전에 대한 인식’, ‘지역 발전에 대한 인식’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

1. 돔구장 건립에 대한 인식

가. 최초와 유일의 돔구장 : 자부심과 설레임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하여 고척스카이돔이 대한민국 최초의 돔구장이라는 사실에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최초’라는 상징성과 ‘유일’한 돔구장이라는 희귀성, 전천후와 상시적 이용이 가능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돔구장의 존재 자체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자부심이 있죠.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이 고척동에 있다는 자부심이죠. 우리한테 길 건너 바로 있잖아요.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국내 최초!

(참여자 #8/지역사회)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 최초하면 뭔가 설레지 않습니까?...(중략)*...돔 야구장 하면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참여자 #1/지자체)

돔구장은 스카이돔이 국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2/지자체)

<참여자 #8>, <참여자 #1>, <참여자 #3>은 자부심과 설레임, 아름다움으로 최초의 돔구장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척스카이돔 건립 자체에 주목하며 최초의 돔구장 건립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 랜드마크로의 역할 :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랜드마크로써의 가치를 높이 사고 있었으며 실내보다 돔구장 외부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참여자는 진술하였다. 또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디자인 홍보가 적절했다고 나타났다.

그래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돔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랜드마크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외보다 실내를 보았을 때, 더 멋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중략)...외부 디자인을 보면 멋있어요. 주간보다 야간에 보면 그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뭐... 디자인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2/지자체)

...당시에 저 공간에서 저 정도의 역동성있게 디자인을 했다는 것은 서울시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중략)...당시의 서울시의 정책이 뭐였냐 하면 디자인 정책이었습니다. DDP나 고척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데...(중략)...명성에 걸맞은, 위상에 맞는 디자인 건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지자체)

<참여자 #2>와 <참여자 #1>은 돔구장의 희소성과 경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견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돔구장이 건립됨으로써 당연히 랜드마크, 그렇게 되었는데...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지...(중략)...디자인...나는 그런 거는 다 좋다고 봐요. 그런 쪽

에서도 젊은 층. 특히 젊은 층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장의 형태를 갖추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6/야구단체)

마찬가지로 <참여자 #6>은 돐구장의 디자인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의 디자인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젊은 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모습이라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약간의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돐구장의 디자인에 만족하고 있었다.

다. 돐구장의 확산 : 후속 돐구장 건립에 대한 기대

최초의 돐구장 건립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고척돐을 시작으로 국내에도 돐구장의 추가적인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후속 돐구장은 야구에 대한 높은 인기, 돐구장의 좌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도시와 충분한 입지가 계획된 지역에서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격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돐구장을 두 세 개 정도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프로야구도 그렇고...프로야구 관중이 850만 정도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을 새롭게 짓는다고 하면 돐구장을 짓는 것이 옳다고 봐요.

(참여자 #7/야구단체)

한편, <참여자 #7>은 돐 야구장의 건립이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미국, 일본에는 돐 야구장이 이미 건립되어 국제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회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돛구장의 소유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돛구장을 국격의 한 부분으로 돛구장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듯 보였다. 따라서 후속 돛구장의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안산은 몰라도 잠실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프로야구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참여자 #8/야구단체)

한창 야구 붐이 한창일 때, 지방에서 야구장을 지으려고 서울시로 다들 견학을 오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돛구장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곳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겠죠.

(참여자 #7/야구단체)

안산시에 실제로 논의가 되었었죠. 안산시는 서울시보다 부지도 넓고 여가도 좋고,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스카이드롬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견주어 보면 안산 같은 부지가 넓고 여유 있는 곳에 돛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참여자 #2/지자체)

또한 후속 돛구장들에 대한 롤모델 역할로 고척스카이드롬이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추후에 건립되는 돛구장은 고척돛을 롤모델로 삼게 될 것이며, 입지의 선택에 있어서도 고척돛의 사례를 본받아 더 좋은 여건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라. 우려의 시선 : 비판을 위한 비판

8번의 설계 변경, 3000억 원의 건립비용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다. 미디어 담론에서는 역시 고척돔을 애물단지, 돈 먹는 하마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부정적인 담론을 양산하는 미디어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고척돔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만약 지금 이러한 예산사용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중략)...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어떤 정책적인 불신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거예요.

<참여자 #1/지자체>

글쎄요...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해요.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체육관계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척돔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가는 좀 더 지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중략)...월드컵 경기장을 봐요. 그 당시에만 사용을 하고 지금 실제로 돈 들어간 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고척돔은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참여자 #2/지자체>

<참여자 #1>은 현재 대한민국의 분위기와 상황적 맥락에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정책적 불신을 언급하며 고척돔의 건립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바라보았다. <참여자 #2>는 월드컵 경기장과 비교를 통해 고척돔의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비판하고 있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기반시설의 건립에는 당연히 필요하죠. 어떻게 운동장을 하나 짓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지...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3/지자체>

야구장 뿐 아니라 모든 시설은 예산이 투입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야구장이 야구 관람을 통해서 관중들에게 준 즐거움과 부가적인 경제 효과를 주었는지는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자 #4/야구단체>

그게 그렇게나 많이 들었나. 돔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것은 그리 보면 안 돼. 매일 시민들이 몇 만 명씩 모여 있는데, 서비스의 일종이지 그건. 다들 세금을 내고 받는 서비스...공익시설이라고 그건...(중략)...그건 공원하고 같은 개념이야. 온 동네마다 공원 조성한다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이냐...그런데 돔구장이 뭐가 헐세낭비고 괴물이나...문화시설이 건립되는 건데...공원 조성하는 데는 돈 안 들어가나, 참나...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 계속되는 거야.

<참여자 #5/야구단체>

<참여자 #3>은 그러한 비판적 담론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으며, <참여자 #4>는 고척돔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여자 #5>는 고척돔을 하나의 문화시설, 공익시설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돔구장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0억, 그 이상이 들더라도 우리가 지금 돔 야구장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중략)...야구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돈의 가치와 상관없이...전체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만큼의 충분한 행복지수를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까 해요.

<참여자 #6/야구단체>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애플단지처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지나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처음에는 다 어려운거지...

<참여자 #7/야구단체>

<참여자 #6>은 돔구장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가치를 높게 생각하며 고척돔을 방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지수를 언급하였다. <참여자 #7>은 고척돔에 대한 평가가 현재보다는 시간이 더 지난 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애플단지...괴물...뭐 어차피 짓기로 하고 지은 건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꼼꼼히 따질 거면 전국 8도에 있는 월드컵 구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이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세금만 들어간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과연 괴물이고 애플단지이냐 이거지...(중략)...돈 먹는 하마들은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데 뭐...

<참여자 #8/지역사회>

비판적 시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도 그러한 시각들이 있었잖아요...(중략)...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3000억 짜리지만 저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봐요.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야구장이 있음으로써 많이 변화되고

앞으로의 활용가치로 봤을 때도 애물단지는 아니죠...(중략)...돈의 관점에서 말
고...야구장이 들어서고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중략)...앞으로 긍정적인 방
향으로 흘러 갈 것이라고 봐요.

<참여자 #9/지역사회>

<참여자 #8>과 <참여자 #9>는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월드컵 구장을 예로
들며 고척돔의 가치를 되새겨볼 필요성과 앞으로의 긍정적인 지역사회의 변
화를 기대하며 고척돔의 비판 담론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마. 입지와 교통문제 : “차선(次善)의 최선(最善)이다.”

국내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부정
적인 인식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입지 선정의 문제였
다. 비좁은 부지, 교통의 문제와 같이 입지 건립논의가 있을 때부터 계속된
문제들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랜드마크로써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약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교통편 자
체가...외곽지역에 있다 보니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잦은 정체구간이다
보니까, 개인차량으로 오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변두리에 있다 보니
교통체증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참여자 #1/지자체)

랜드마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동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시설이 작다보니 지하주차장에 대형버스조차 못 들
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뭐 야구경기와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3/지자체)

<참여자 #1>은 랜드마크로써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입지와 교통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참여자 #3>은 좁고 부족한 주차장과 같은 시설적인 측면이 랜드마크로써는 부족함이 많다는 의견과 단순히 야구와 공연의 역할만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하며 역시 입지와 시설의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뭐...그 당시 저만한 부지의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는 부지가 저기 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3/지자체)

지자체의 관계자인 <참여자 #3>은 고척스카이돔의 부지 선정에 대한 안타까움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곳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진술하였다. 교통의 정체가 심하고 부지도 좁은 지역이라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부지중에서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고 회상하였다.

야구인으로서 생각할 때, 지역적인 장소, 뭔가 비좁다? 입지가 왜소하고 좁으며, 그리고 여기환경으로써도, 주거 환경들과 너무 복잡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도 불편하고...(중략)...고척돔같이 좁은 지역에 돔구장을 지었다는 것이...(중략)...미국은 야구가 끝나면 만 대 이상의 차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그런데 우리를 보면 야구를 세 시간 보고, 또 나가는 데만 몇 시간 걸리니까...교통 환경이...아무래도 아쉬움이 남긴 하지.

(참여자 #6/야구단체)

저기가 나쁜 게 입지가 좋지 않아. 교통편도 나쁘고...그러니까 이게 작은 시설물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뚜껑만 덮어 놓으니까 그런 거라고...빠른 시간에 차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어야해 시합이 끝나면...입지가 안 맞는 입지야...그래서 모두가 불편하다고...

<참여자 #5/야구단체>

<참여자 #6>과 <참여자 #5>는 야구단체에 오랜 기간 종사한 관계자로 고척스카이돔의 입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먼저 좁은 부지와 주차시설의 부족함을 언급하였고, 경기가 끝난 후 교통의 유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아쉬워했다.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고히 하였으며, 추후 건립될 수 있는 돔구장, 혹은 대형 스포츠시설의 입지에 대해 이러한 점을 염려했다.

2. 설계 변경(개방형에서 완전 돔으로)에 대한 인식

가. 상시 사용 가능한 야구장의 건립 :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

고척스카이돔은 초기 개방형 지붕에서 완전 돔 형태의 구장으로 설계가 변경되며 365일 상시 사용이 가능한 야구장이 되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구 경기가 가능한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돔구장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보단, 그 실용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상시적 이용이 가능하니까...그런 시설물이 고척동에 있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3/지자체)

<참여자 #3>은 4계절 내내 기후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야구경기를 보기 위한 여건의 구축을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냈다. 야구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의 공연도 야구가 없는 시즌에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시설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면 그에 걸맞은 대회가 계속 유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시설만 만들어 놓고 대회를 유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2/지자체)

앞으로는 국제대회가 많이 유치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도 관심거리가 되고, 또 지금 커가는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중략)...우리는 사계절이 있고, 정규시즌이 끝나고 이벤트성 대회의 유치를 위해서도 돔구장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참여자 #6/야구단체)

어쨌든 지어지고 나니까 국제대회나...우리나라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우천 시나 눈이 올 때...국제대회가 시즌 전이나 시즌 후에 있으니까 그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실정에 안 맞았다고...그런데 이제 그런것들을 유치할 수 있지.

(참여자 #5/야구단체)

상시 사용가능한 돔 야구장의 건립으로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의 유치, 세계적 스포츠이벤트의 유치등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었다. 돔구장의 상징성과 실용성이 각종 대회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6>은 이러한 기대효과가 결국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며 대회 유치의 수익을 통해 아마야구,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나. 프로전용 야구장 결정 : 아마추어 야구의 좌절, 그리고 희망

고척동에 야구장이 들어설 당시에는 아마추어 야구의 성지라고 불리는 동대문야구장의 상징성을 대체하여 갖게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하지만 최초 개방형으로 논의되었던 야구장은 8번의 설계 변경을 거쳐 완전 돔구장으로 설계되었다. 완전 돔구장으로 건립됨으로써 운영료, 임대료 등의 예산문제와 맞물려 아마추어 전용 야구장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해 졌다. 프로전용구장이 되어버린 후, 아마추어 전용구장이 될 확률은 낮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은 완전 돔구장 사용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며 아마구장으로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고척스카이돔을 대신하여 목동야구장이 아마추어 야구의 성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도 있었다. 하지만 완전 돔 형태의 프로전용구장이 되어버린 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졌다고 언급하였다.

아마야구장으로 돔 야구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동 야구장을 아마야구장으로 넘겨줬고, 아마야구 중 큰 경기 같은 경우는 고척돔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고...그런데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죠...

(참여자 #1/지자체)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반 아마야구로는 유지관리가 안될 거라고요. 일 년에 내가 알기로는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걸 아마야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유지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않을까 해요.

(참여자 #8/지역사회)

아마가 쓰기에는 유지비나 그런 부분이...상징성도 좋지만...물론 초기에는 아마야구를 위해 지어지긴 했지만...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랜드마크의 역할로...(중략)...프로구단의 구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난 수익으로 아마야구에 대해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참여자 #9/지역사회)

<참여자 #1>, <참여자 #8>, <참여자 #9>는 완전 돔구장이 되어버린 고척 스카이돔에 대한 아마야구 사용의 한계를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전용구장으로 운영되는 고척돔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아마추어 야구를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다. 8번의 설계 변경 : 돔구장의 설계와 실용성에 대한 불신

다른 한편으로는 8번의 설계 변경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시간과 예산의 낭비,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원래의 목적대로 초기부터 개방형 구장으로 지어졌다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의 의견들도 있었다. 또한 연구의 참여자들 중 일부는 여러 번의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게 우리나라 건물 짓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설계 변경을 몇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단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대형 시설물들을 건립하는데 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중략)...상당히 좁고...저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게 2만 명이 앉을 거를 1만 명만 앉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돔구장의 숫자적인 측면...예를 들어 좌석 수나 뭐...그런데 지금은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편리성. 그 다음에 스포츠 관람자들의 안전, 시야확보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지...설계 변경도 몇 번 하고 했다하는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3/지자체>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과정에서 나타난 8번의 설계 및 예산 변경에 대해 <참여자 #3>은 비단 고척돔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설물 건립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설계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자의 입장에서 시설물의 설계 변경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제가 우리나라하고 외국에 가봤던 것들을 비교해 보면...(중략)...돔구장이 100년 200년 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조금 무리하더라도 개폐형으로 갔다면...길게 봤을 때는 비용도 절약이 되고, 팬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봐요...(중략)...그런 것들이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은가...앞으로는 만약

에 돔구장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도 그렇고...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돔구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6/야구단체>

설계 뭐 이런 건 우리는 모르겠고...초창기에 흡연시설이 없다보니 담배를 다 밖에서 켜던 말이야. 지금은 흡연박스가 있어서 거기서 피지만 그때는 온통 담배꽂초 천지였어. 그리고 장애인석도 32개인가. 그거 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실제 그걸 사용하는지도 궁금하고...아무튼...뭐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검토가 없이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닐까...그리고 4층 저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 술 한 잔 마시면 굴러 떨어질 것 같더라고.그런 것들이 아쉽긴 하지.

<참여자 #8/지역사회>

어찌됐건, 그렇게 힘든데...설계를 그렇게 변경해서 예산도 늘어나고...그렇게 힘든데...그걸 하질말지...뭐 그렇게 생각했죠. 뭣 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냐...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

<참여자 #7/야구단체>

<참여자 #6>은 해외 전지훈련을 다니며 보고 느낀 것들을 토대로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고척스카이돔의 설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돔구장을 보다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자 #8>은 8번이나 변경된 설도 실제적인 편의성과 동떨어져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참여자 #7>은 애초에 아마추어 전용 구장으로 지었다면 설계 변경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어떤 정서적인 부분과 연결시키자면, 돔으로 다 덮어버리는 것보다는...노을이 지는 것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스포츠와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장점의 요인들도 많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뭐...

꼭 완전 돔으로 덮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뭔가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야구장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완전 돔으로 덮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3/지자체>

그러니까 야구인들의 염원, 소음문제...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붕이 올라간 건 아니고, 진행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진 거고...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욕심. 그런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9/지역사회>

<참여자 #7>은 돔구장의 지붕이 야구인들의 염원도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에서의 돔구장 건립에 대해 진술하였다. 완전 돔구장의 지붕이 야구인과 국민들의 염원보다는 당시 정치 관계자의 치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보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3>은 완전히 지붕을 덮어버리는 것 보다 스포츠경기와 자연과의 조화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며 완전 돔구장이 되어버린 고척스카이돔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9>는 돔구장의 지붕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찾고 있었다.

국제대회를 하면서 프라이드가 생겨야 하는데, 시설적인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국제적으로 어떤 우호적인 관계자들은 잘 지어진 구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중석의 배치를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하거든요...(중략)...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해외에 미디어를 통해 나가게 될 텐데, 그럴 때 마다 미국, 특히 일본의 구장들과 비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연구자 #9/지역사회)

...돔(dome)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부대시설. 예를 들어 본 경기장이 있다면 연습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달랑 돔구장만 설치되어 있고...(중략)...스카이돔 같은 경우는 달랑 본 구장만 있어서...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죠.

(참여자 #2/지자체)

외부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고척돔 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야구를 실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중략)...랜드마크가 되려면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유효공간이라든지, 사실 체육시설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참여자 #9/지역사회)

국제대회의 유치에 대한 인식에서도 시설적인 아쉬움을 언급하였다. <참여자 #2>와 <참여자 #9>는 시설적인 측면의 아쉬움을 지적하며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돔에 대해 진술하였다. 최초의 돔구장으로써 야구장뿐만 아니라 야구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건립되었다면 더욱 가치가 있는 스포츠시설이 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 섞인 의견도 나타나고 있었다.

3. 야구 발전에 대한 인식

가. 야구의 저변 확대와 인프라 확충 : 생활체육야구의 발전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함께 7개의 대체구장이 논의되었다. 당시에는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던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다. 하지만 철거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7개의 대체구장 역시 새로운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다. 부족했던 아마추어 야구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에 따른 야구의 인기와 저변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야구장 역시 시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설물입니다. 국민적 요구와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참여자 #4/야구단체>

어쨌든 돔이...좋은 구장아이가...웅장하고...지붕이 있어 좋긴 하지...팬들이 야구장이 잘 되어 있어 좋겠지 당연히.

<참여자 #5/야구단체>

<참여자 #4>와 <참여자 #5>는 완전 돔구장의 지붕에 대해 시민과 야구팬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동대문야구장의 철거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구장으로 고척스카이돔을 포함한 다수의 야구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야구 저변 확대 및 인프라 확대로 이어져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4/야구단체)

돔구장을 떠나서...동대문야구장이 하나였는데, 그것을 없애고 야구를 할 수 있는 구장을 더 많이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야구장이 더 많아질 거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참여자 #7/야구단체)

또한 <참여자 #4>와 <참여자#7>은 동대문야구장의 철거로 건립된 대체 구장의 결과물을 강조하며 야구 저변확대, 인프라 개선, 사용가능한 야구장의 증가에 대해 진술하였다. 물론 동대문야구장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야구장의 철거에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대체 구장의 건립과 정책수행에 대한 수용성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동대문 야구장 대체구장의 부지로서 가장 적절했던 곳이 고척동의 부지였으며, 실제로 고척스카이돔을 포함한 7개의 대체 야구장이 건립됨에 따라 실제로는 야구의 저변확대 및 인프라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야구단체와의 협의 결여 : 정책결정과정의 아웃사이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하여 야구 관련단체의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정책결정이나 야구장의 건립 논의 단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관한 일방적인 통보를 비롯해 야구장의 건립과 관련해서 야구 관련단체와의 협의가 부족했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협의가 있었다면 더 양질의 시설을 갖춘 돔구장이 건립될 수 있었다며 아쉬워하고 있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우리 역사적인 지역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동대문야구장과 같이 좁은 시각에서 함부로...(중략)...동대문구장을 살

려놓고도 지금과 같은 대체 구장들을 지을 수 있는데...(중략)...동대문야구장을 폐쇄하면서 그런 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너무나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참여자 #6/야구단체)

동대문야구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야구의 메카인데...아마야구의 산실이였기 때문에...상징성도 있었는데...급급하게...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죠.

(참여자 #9/야구단체)

동대문구장은 한국 스포츠의 요람이야...우리는 그런 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디자인센터를 만들고...그건 아니거든...(중략)...뚝을 지으려면 그쪽에 멋지게 건립하든가...(중략)...원칙적으로는 불만이지. 그런데 시에서 원칙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참여자 #5/야구단체)

<참여자 #5>와 <참여자 #6>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보다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다른 참여자들이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구장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반면, 두 명의 참여자는 동대문야구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며 동대문야구장의 건립을 비판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근대 스포츠의 산실인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과정에 있어 야구 단체와의 협의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그들은 프로야구와 야구관련 단체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며 다른 참여자들과는 달리 동대문야구장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듯 보였다.

또한 고척스카이돔이 동대문야구장의 보상적인 측면과 아마야구의 성지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야구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자체보다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더 수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생각된다.

그게...제가 봤을 때는요, 야구인들의 염원도 있고, 그리고 시장입장에서
는 그런 뭔가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내세울 수 있는 치정이 될 수 있잖아
요. 최초의 돔구장이니까. 그거는 뭐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참여자 #7/야구단체>

완전 돔구장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야구계와의 협의, 국민들의 염원보다
도 당시 정치가의 치정에 대한 욕심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다.

4.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가. 도시 이미지의 개선 : 의도되지 않은 효과(unintended effect)

고척스카이돔과 같은 대형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척돔 역시 고척동과 구로구 주변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지역사회의 상권과 관련된 주체들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처음 고척돔이 건립될 당시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체 부지가 여기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봐요. 여기 지역사람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지...뭘...여기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구장이 건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해요...(중략)...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구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고요...(중략)...고척스카이돔 때문에 교통이 더 불편하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그 지역이 원래 정체 지역이란 말이죠...

(참여자 #2/지자체)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로일거야...큰 스포츠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교통문제를 걱정하지만...그래서 고척교도 넓혔잖아. 더 좋아진 거란 말이야 이게...고척돔 입지는...괜찮다고 봐요 전...

<참여자 #8/지역사회>

<참여자 #2>는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부지로 고척동이 언급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야구장이 지역사회에 건립되게 된 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상습적인 교통

정체에 대해서도 이 지역은 원래 정체현상을 보이는 곳이라며 교통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참여자 #8>은 고척돔의 건립에 대해 교통문제를 걱정하긴 했지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해 진술하였다. 두 참여자는 모두 고척스카이돔과 교통체증의 문제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대형 스포츠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면 되었지, 마이너스 요인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봐요...(중략)...이것은 평가를 해보면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중략)...고척스카이돔으로써의 기능이 점점 확대가 되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용객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체육-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수영장은 이미 넘쳐나고 있어요. 200~300%까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참여자 #1/지자체>

지역이 많이 발전하겠죠. 개발이 되고, 돔구장 때문에 여러 가지 상권을 새로 꾸민다든지, 확충한다든지...뭐...아무래도 지역이 많이 발전이 되겠죠.

<참여자 #8/지역사회>

잠실 옆에 신천 먹자골목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사실 그것도 잠실야구장 때문에 발전한 거라고요 그게요...그러니까 뭐 이것도 시간을 두고 지역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중략)...더 나아질 거라고 봐요.

<참여자 #7/야구단체>

지역상권이라든지, 그 지역이 절대로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은 교통이 마비되고 소음이 있어서 피해를 줄 수 있지만...(중략)...고척돔이 들어서고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나

쁘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중략)...상권에서도 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노력을 안 하고 발전하기를 바라기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거주민이나 지역상권,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참여자 #6/야구단체>

서남권 지역발전이라고 하면, 고척돔이 들어오면서 부대시설이라든가 도로 확충,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중략)...효과가 크다고 봐요.

<참여자 #2/지자체>

그래도 제가 이 지역에서 20년을 거주했는데...(중략)...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맞죠. 제가 뭐 상권을 봤을 때는, 간판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참여자 #9/지역사회>

위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새로운 상권의 형성, 시설의 개보수, 경제적 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참여자들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연관 짓고 있었다. 또한 잠실구장 옆의 신천먹자골목을 예로 들며 그러한 의견을 뒷받침 하였다.

문화복합 공간. 그거야 그거. 가치 있는 문화 공간. 거기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야구뿐만 아니라 우천에 관계없이...

<참여자 #5/야구단체>

이렇게 대형스포츠 시설이 생기고 새로운 게 생기면 새로운 문화들이 형성되는 거야. 그것은 인위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레 생기는 거라

고 생각해요.

<참여자 #1/지자체>

야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공연도 하고, 그만큼의 수준 있는 공연들.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앞으로 그런 문화적인 공간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거기에 대해선.

<참여자 #9/지역사회>

한 편, <참여자 #5>, <참여자 #1>, <참여자 #9>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통해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새로운 문화 공간이 형성되었다는 점과 문화 공간의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가치 있는 문화와 문화 공간이 자연스레 생기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오랫동안 고척동의 상징은 무엇이나 하면, 교도소였어요. 교도소가 있는 동네. 사람들은 고척동을 원래 잘 몰랐어요. 고척동에 대해 물으면 교도소가 있던 동네. 이런 수준으로만 알았던 말이에요...(중략)...고척동의 이미지는 교도소의 이미지로 덮여있었지. 그런데 스카이돔이 생기면서 고척동을 떠올리면 스카이돔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었죠. 이미지 개선이...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게 지어지고 나서 고척동의 이미지 개선이 되었다고...

<참여자 #3/지자체>

<참여자 #3>은 고척돔이 건립됨으로써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들이 생겼다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도소와 공장의 도시이미지가 고척돔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고척스카이돔이 고척동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지역발전에 대한 의심 :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지역발전과 고척스카이돔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존재하였다. 스포츠시설의 건립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돔구장의 건립이 과연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돔구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도네이션(donation)이나 네이밍(naming) 사업을 통해 함께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용할 때...또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혜택도 보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하게 되면...(중략)...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지역 따로, 시설 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여자 #6/야구단체〉

스카이돔이 건립됨으로써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이 발전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 야구 경기가 끝나면 아주 늦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귀가를 해야 하니까 그쪽으로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고척스카이돔이 건립 되니까 그게 어떤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중략)...그래도 부정적인 것 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아직은 더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참여자 #3/지자체〉

〈참여자 #8〉과 〈참여자 #6〉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으로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처음 건립 당시 지역사회와

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건립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건립 당시 지역사회와의 협조, 도네이션이나 네이밍 사업을 통해 보다 관심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었다면 현재는 고척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보였다. <참여자 #3>은 고척돔의 건립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스포츠시설이 생겨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 없는 것 같아. 대형 스포츠시설들이 지어졌을 때...그런데 저것들이 세금으로 지어지는 거잖아. 그럼 공공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저게 수익성이 주가 되어 버렸을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참여자 #8/지역사회>

<참여자 #8>은 수익성 사업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와의 마찰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스포츠시설의 건립 당시에 지역사회와의 협이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뭐,,,괜찮지 우린...그런데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된 거니까...위정자들이 결정한 거고, 주민의 여론을 물어봤던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실제로도 그리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걸...

<참여자 #9/지역사회>

그러니까...그건 처음서부터 예견되었던 거야.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도 갈등이 생긴다 이거였지. 그리고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 거라고 예상을 했지.

<참여자 #7/야구단체>

<참여자 #9>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러한 결정과정이 있기 전에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협의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보였다. <참여자 #7>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시설 내 수익시설의 설치되는 상황은 지역 상권과의 갈등을 피하기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역 상권과의 협의와 논의 없이 수익시설을 입점한다는 점에 대해 고척돔의 건립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VI. 논의

본 연구는 대한민국 최초의 돐 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돐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스포츠시설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척스카이돐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고척스카이돐 건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고척스카이돐의 건립이 미디어 담론과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논의함으로써 대형 스포츠시설의 건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시선의 담론과 인식을 탐색하고자 노력하였다.

1. 고척스카이돐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고척스카이돐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최초의 돐구장 건립’,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완전 돐구장과 꿈의 지붕’, ‘입지와 예산에 대한 비판’, ‘지역사회와의 공존’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스포츠공간에 대한 관심 증대는 스포츠공간으로 대표되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고재곤, 김현석, 2000; 구강본, 2013; 유지곤 2004; Bale, 1993b; Koch, N., 2017). 또한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 외국의 우수한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야구경기의 시청, 프로야구의 폭발적인 인기역시 새로운 돐 야구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백선기(2005, 2015), Fairclough(1995b), Van Dijk(1997)의 주장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디어는 복합적 매체로써 사회의 중요한 이슈나 의제들에 대해 대중들의 반응이나 의견 등을 전달하고 우리 사회 전체로의 이목을 환기 시키며 다양한 논의를 독려한다. 또한 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끊임없는 과정으로 사회현상과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스포츠 돔 야구장으로써 전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만큼 고척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고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세부적으로 새로운 야구장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최초의 돔구장 건립에 대한 담론, 철거되는 동대문야구장에 대한 아쉬움의 담론, 염원하던 돔구장의 건립에 대한 새로운 희망 담론, 입지와 예산문제에 대한 부정 담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지역 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담론의 생산과 소비는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는 주체들에 의해 주도된다(Fairclough, 1995a, 1995b).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한 담론 생산과 소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로 구분할 수 있었다.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으며 그들은 담론을 생산하기도, 혹은 소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강내희, 1990; 류용재, 2010; 백선기, 2005, 2015; Fairclough, 1992a, 1992b, 1995a, 1995b)에서 나타나는 미디어 담론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의 장에서 소통되도록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고척돔 건립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담론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었다. 이처럼 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미디어의 담론 생성과정을 주목하고, 담론의 귀결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담론의 영향과 파장을 생각하는 일은 사회적 현상을 보다 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사료된다.

2.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은 ‘돔구장 건립에 대한 인식’, ‘설계 변경에 대한 인식’, ‘야구 발전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크게 네 가지의 범주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Bassa & Jaggernath(2010)의 연구에서 월드컵 경기장의 건립과 관련하여 상반되게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스포츠시설물의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Cheng & Jarvis(2010)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가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사회 문화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지만, Kennelly & Watt(2012)는 올림픽으로 인해 변해버린 도시를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스포츠시설의 건립과 개발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 역시 앞서 말한 네 가지의 범주에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의견은 다시 긍정과 부정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었다. 돔구장 건립과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긍정적인 반응을 취한 반면, 야구단체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야구발전에 대한 인식으로는 이해관계자 모두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던 반면, 야구단체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이는 스포츠공간으로 대표되는 스포츠시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인식은 모두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고척돔의 건립 자체는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참여자 모두는 대한민국 최초의 돔 야구장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 스포츠시설의 건립과 함께 나타나는 막연한 기대감과 걱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그들만의 기준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Baade & Dye, 1990; Bale, 2000; Hassan & Brown, 2014; Kennelly & Watt, 2012; Lipsitz, 1984).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분석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이 미디어와 실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인식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문제는 1)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어떠한가? 2)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 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이 최초 논의되었던 2005년부터 2015년 개장까지 지난 10년간의 미디어(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보도 자료 116건을 미디어 담론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고척돔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단체·집단(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에서 관계자 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최초의 돔구장 건립’,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완전 돔구장과 꿈의 지붕’, ‘입지와 예산에 대한 비판’, ‘지역사회와의 공존’에 관한 것으로 크게 다섯 가지의 담론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은 ‘돔구장 건립에 대한 인식’, ‘설계 변경에 대한 인식’, ‘야구 발전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돐 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돐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스포츠시설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결과와 논의, 결론 및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척스카이돐이 개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고척돐이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개장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개장부터 현재까지의 미디어 담론과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고척스카이돐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미디어 보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5개의 주요 신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지만,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켜 고척돐의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해관계자들 인식간의 유사성 및 차이점이 부각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척스카이돐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인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각 관계자들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들의 유사성 및 차이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고척스카이돐의 건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돐구장 개장 후 실제로 방문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최초의 돐구장이라는 공간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이용자가 바라보는 국내 최초의 돐구장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내희(1990). 담론의 안팎: 몇 가지 담론이론에 관한 소고. **인문학연구**, 17, 115-132.
- 고재곤, 김현석(2000).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발전전략과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39(2), 677-692.
- 곽정현, 서원석(2016). 지역 내 문화체육자원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706-716.
- 구강본(2013). 스포츠공간의 사회적 맥락성과 상징성.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1(2), 59-75.
- 김명권(2012). 한국프로야구의 창립배경과 성립과정. **스포츠인류학연구**, 7(2), 163-183.
- 김미옥, 허지정, 유지곤(2015). 스포츠도시 유형화 및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스포츠도시 발전방향 연구. **체육과학연구**, 26(4), 780-793.
- 김사업(2004). 사회체육센터 이용자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2, 145-160.
- 김연중(2004). 언론개혁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양식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7, 35-62.
- 김종수(2011). 기술기사 : 대형돔구장 건립의 필요성. **한국공간구조학회지**, 11(2), 30-33.
- 김필승(2005). 상업 스포츠클럽의 인식과 등록기간에 따른 만족도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4(2), 409-419.
- 김학실(2015).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제활동촉진법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189-215.
- 류용재(2010). 담론분석과 정치경제학의 조우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커뮤니케이션 질적 연구방법론의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8(4), 37-73.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8 체육백서.

- 박거용(1995). 신문담론분석을 위한 예비적 연구. **인문과학연구**, 4, 263-285.
- 박선경(2014). 특별기사 : 서남권 돛야구장 건립 공사현장 견학. **한국공간구조학회지**, 14(1), 31-33.
- 박성배(2016). 스포츠 경기장의 현재와 미래. **인물과 사상**, 223, 158-170.
- 박재우(2012). 돛구장, 약인가? 독인가? - 미디어에 나타난 돛구장 건설 관련 사회적 담론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7), 378-393.
- 박재우, 박현욱(2011).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스포츠정책 변동 사례 연구: 지방 공공체육시설(야구장) 관련 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0(6), 113-127
- 박해광(2007). 문화 연구와 담론분석. **문화와 사회**, 2, 83-116.
- 백선기(2005). 전쟁보도와 미디어 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백선기(2015). **미디어 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덕희(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6(2), 55-89.
- 서울특별시(2011). **서남권문화체육컴플렉스(돛야구장) 건립사업**.
- 서원석, 광정현(2016). 대규모 프로스포츠시설 입지에 따른 도시특성요인 비교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712-721.
- 신진욱(2011). 비판적 담론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89, 10-45.
- 심창섭, 서용석(2010). 도시여가공간으로서 복합쇼핑몰의 사회문화적 의의 - 공간의 사회적 구성의 관점에서-. **관광학연구**, 34(6), 191-210.
- 유지곤(2004). 특집: 체육환경의 변화와 체육시설의 확충 방향. **스포츠과학**, 89, 18-23.
- 윤이중, 김인숙, 윤기운, 이병규, 진주은(2010). 도시 관광 촉진을 위한 스포츠관광매력물 조성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3), 131-153.
- 윤평중(2001). **논쟁과 담론**. 서울: 생각의 나무.
- 이동현, 조충현, 이광용, 김홍식(2006). 지역별 스포츠시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5(2), 233-244.

- 이두정, 진동성(2013). [프로젝트 리포트] 서남권 돔야구장. **건축**, 57(4), 87-95.
- 이병수(2007). 스포츠 마당 : 동대문운동장은 반드시 보존돼야 할 근대문화 유산. **스포츠과학**, 101(0), 100-107.
- 이유찬, 윤종국(2000a). 스포츠 시설 이용 시 도시 커뮤니티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9(2), 154-167.
- 이유찬, 윤종국(2000b). 스포츠 참가와 도시 커뮤니티 형성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4, 855-868.
- 이혁기(2013). 스포츠, 공간, 사회 - 스포츠공간에 관한 공간사회학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52(4), 117-128.
- 임번장(2004). **사회체육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현승, 이근모(2014). 피트니스클럽 공간의 생산: 일상적 공간으로서 실천, 재현, 전유.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1), 51-78.
- 전홍주(2011).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담론분석: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1), 351-377.
- 정동구, 하용용(2004). 서울시립 동대문운동장의 건강생활체육공원화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3, 1-12.
- 정상원(2012). 지역 체육, 스포츠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기대 및 성과 탐색.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7(1), 397-412.
- 조명래(2013). **공간으로 사회 읽기: 개념, 쟁점과 대안** 경기: 한울아카데미.
- 지역공기업평가원(2015). 서남권돔구장 조직, 인력 적정성 검토영역.
- 지주형(2013). 스포츠사회학과 ‘공간적 선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6(1), 1-21.
- 채재성, 이규환(2005). 프로야구 경기장 시설요인이 관람만족 및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3, 265-275.
- 최민규(2015). 특집: 달콤 쌉싸름했던 2015 한국스포츠 ; “고척돔” 스포츠 문화의 새장을 열다. **스포츠과학**, 133(0), 2-9.
- 최진호, 류웅재(2012). 신한류(新韓流)의 담론정치: 주요일간지 한류 보도에

- 관한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 19, 345-378.
- 한국ABC협회(2016). **2016년 일간신문 161개사 인증부수**.
-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 한승백(2005). 도시공원 동호회 인라인스케이터의 활동 공간 만들기. **한국 체육학회지**, 44(5), 217-228.
- 한주연(2003).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의 도시연구 - 로스엔젤레스와 탈 근대적메트로폴리스. **공간과 사회**, 19, 188-199.
- 홍성태(2004). 청계천 복원사업과 청계천의 파괴: 이명박 시장의 신개발주의와 이익의 정치. **경제와 사회**, 63, 39-64.
- Ahlfeldt, G., & Maennig, W. (2010). Stadium Architecture and Urban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Econo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4(3), 629-646.
- Andrews, D. L., & Carrington, B. (Eds.). (2013). *A Companion to Sport*.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Baade, R. A., & Dye, R. F. (1988a). An analysis of the economic rationale for public subsidization of sports stadiums.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22(2), 37-47.
- Baade, R. A., & Dye, R. F. (1988b). Sports stadiums and area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3), 265-275.
- Baade, R. A., & Dye, R. F. (1990). The impact of stadium and professional sports on metropolitan area development. *Growth and change*, 21(2), 1-14.
- Bale, J. (1993a). *Sport, Space and the City*. New York, NY: Routledge.
- Bale, J. (1993b). The spatial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dium.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28(2-3),

121-133.

- Bale, J. (2000). The changing face of football: Stadiums and communities. *Soccer & Society*, 1(1), 91-101.
- Barker, C., & Galasinski, D. (2001).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A dialogue on language and identity*. London: Sage.
- Bassa, Z., & Jaggernath, J. (2010). Living close to 2010 stadiums: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2010 FIFA World Cup and stadium development in Durban, South Africa. *Alternation*, 17(2), 121-45.
- Bell, A., & Garrett, P. D. (1998).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Hoboken, NJ: Wiley-Blackwell. 백선기 역(2004). *미디어 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Bennett, T., Bustamante, M., & Frow, J. (2013). The Australian space of lifestyles in comparative p
- Buckman, S., & Mack, E. A. (2012). The impact of urban form on downtown stadium redevelopment proje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Phoenix and Denver. *Journal of Urbanism: International Research on Placemaking and Urban Sustainability*, 5(1), 1-22.
- Cheng, E., & Jarvis, N. (2010). Residents' Perception of the Social-Cultural Impacts of the 2008 Formula 1 Singtel Singapore Grand Prix. *Event Management*, 14(2), 91-106.
- Chiu, C. (2009). Contestation and conformity: street and park skateboarding in New York City public space. *Space and Culture*, 12(1), 25-42.
- Coates, D., & Humphreys, B. R. (1999). The Growth Effects of Sport Franchises, Stadia, and Arena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8(4), 601-624.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 Among Five Approaches*. London: Sage.
- Erkip, F. (2003). The shopping mall as an emergent public space in Turkey. *Environment and Planning A*, 35(6), 1073-1093.
- Erkip, F. (2005). The rise of the shopping mall in Turkey: the use and appeal of a mall in Ankara. *Cities*, 21(2), 89-108.
- Fairclough, N. (1992a). *Discourse and social change*. Oxford: Blackwell.
- Fairclough, N. (1992b). Discourse and Text: Linguistic and intertextual analysis within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 Society*, 12(2), 193-217.
- Fairclough, N. (1995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Language in social life series*. New York, NY: Longman.
- Fairclough, N. (1995b). *Media Discourse*.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이원표 역(2004). **대중매체 담화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Fairclough, N. (2001). *Language and Power(2nd ed.)*. London: Pearson Education. 김지홍 역(2011). **언어와 권력**. 서울: 도서출판 경진.
- Fairclough, N. (2003a).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New York, NY: Routledge.
- Fairclough, N. (2003b).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New York, NY: Routledge. 김지홍 역(2012). **담화분석방법: 사회 조사연구를 위한 텍스트 분석**. 서울: 도서출판 경진.
- Fairclough, N. (2015). *Language and Power(3rd ed.)*. New York, NY: Routledge.
- Fairclough, N., & Wodak, R. (1997).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van Dijk T. A. (eds.),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Discourse Studie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Vol. 2) (pp. 258-284). London: Sage.
- Foucault, M. (1971). *L'ordre du discours*. Paris: Gallimard. 이정우 역

- (2011). **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
- Gans, H. J. (2002). The sociology of space: a use-centered view. *City & Community*, 1(4), 329-339.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 Gunter, A. (2011). Stadium upgrades as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 fallacy of the Ellis Park Sports Precinct upgrade as LED. *South African Geographical Journal*, 93(1), 75-88.
- Harvey, D. (1999). Time-Space Compression and the Postmodern Condition. In Waters, M. (Eds.), *Modernity: Critical Concepts* (pp. 98-118). New York, NY: Routledge.
- Hassan, D., & Brown, S. (2014). *Sport and Communities*. New York, NY: Routledge.
- Holloway, S. L., & Valentine, G. (2000). Spatiality and the new social studies of childhood. *Sociology*, 34(4), 763-783.
- Hritz, N., & Ross, C. (2010). The Perceived Impacts of Sport Tourism: An Urban Host Community Perspective.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4(2), 119-138.
- Jones, C. (2001). A level playing field? Sports stadium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in the United Kingdom. *Environment and Planning A*, 33(5), 845-861.
- Kennelly, J., & Watt, P. (2012). Seeing Olympic effects through the eyes of marginally housed youth: changing places and the gentrification of East London. *Visual studies*, 27(2), 151-160.
- Koch, M. (2017). *Roads to Post-Fordism: Labour Markets and Social Structures in Europe*. New York, NY: Routledge.
- Kural, R. (2010). Changing Spaces for Sports 1. *Sport in Society*, 13(2), 300-313.
- L' Aoustet, O., & Griffet, J. (2004). Sharing public space: Youth

- experience and socialization in Marseille' s Borely Park. *Space and Culture*, 7(2), 173-187.
- Lee, J. W. (2017). Competing visions for urban space in Seoul: Understanding the demolition of Korea' s Dongdaemun Baseball Stadium. In Koch, N. (eds.), *Critical Geographies of Sport: Space, Power and Sport in Global Perspective* (pp. 142-156). New York, NY: Routledge.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London: Sage.
- Lipsitz, G. (1984). Sports stadia and urban development: A tale of three citie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8(2), 1-18.
- Lorde, T., Greenidge, D., & Devonish, D. (2011). Local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Impacts of the ICC Cricket World Cup 2007 on Barbados: Comparisons of Pre-and Post-Games. *Tourism Management*, 32(2), 349-356.
- Macdonell, D. (1986a). *Theories of discourse: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 Macdonell, D. (1986b). *Theories of discourse: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임상훈 역(2002). **담론이란 무엇인가**. 경기: 한울.
- Mills, S. (1997a). *Discourse, The Critical Idiom*. New York, NY: Routledge.
- Mills, S. (1997b). *Discourse, The Critical Idiom*. New York, NY: Routledge. 김부용 역(2001). **담론**. 경기: 인간사랑.
- Munarin, S., & Tosi, M. C. (2009, November). Welfare space in Europe. Paper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Forum on Urbanism(IFoU)* on The New Urban Question-Urbanism beyond Neo-Liberalism, Amsterdam/Delft.
- Pelissero, J. P., Henschen, B. M., & Sidlaw, E. I. (1991). Urban Regimes, Sports Stadiums, and the Politics of Economic Development Agendas in Chicago. *Review of Policy Research*,

102-3), 117-129.

- Phillips, L., & Jorgenson, W. (2002). *Discourse analysis as theory and method*. London: Sage.
- Reid, G. (2014). Save Meadowbank stadium: the politics of local stadium clo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6(1), 37-54.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2005).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 서울: 논형.
- Rosenberg, B. C. (2015). Social spaces for seniors: Exploring seniors' centres and clubs in Australia. *Journal of Sociology*, 51(3), 464-477.
- Rosentraub, M. S., Swindell, D., Przybylski, M., & Mullins, D. R. (1994). Sport and Downtown Development Strategy If You Build It, Will Jobs Come? *Journal of Urban Affairs*, 16(3), 221-239.
- Sam, M. P., & Hughson, J. E. (2011). *Sport in the City: Cultural Connections*. New York, NY: Routledge.
- Schroer, M. (2005). *Räume, Orte, Grenzen: Auf dem Weg zu einer Soziologie des Raums*. Berlin: Suhrkamp Verlag. 정인모, 배정희 역 (2010).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서울: 에코리브르.
- Senkiewicz, T. (1998). Stadium and arena financing: Who should pay. *Seton Hall J. Sport L.*, 8, 575.
- Silk, M. L. (2004). A tale of two cities: The social production of sterile sporting space.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8(4), 349-378.
- Smith, A. (2005). Conceptualizing City Image Change: The 're-imaging' of Barcelona. *Tourism Geographies*, 7(4), 398-423.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London: Sage.
- Tangen, J. (2004). 'Making the space' : A sociological perspective on

- sport and its facilities. *Sport in society*, 7(1), 25-48.
- Tonkiss, F. (2012). *Discourse analysis*. London: Sage.
- Urry, J. (2001). The sociology of space and place.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ology*, 3-15.
- Van Dijk, T. A. (1997).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Vol. 2). London: Sage.
- Wodak, R., & Chilton, P. (2005). *A new agenda i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ory, methodology and interdisciplinarit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담론분석 대상

<조선일보>

조선일보(2007.03.19.). [만물상] 동대문야구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19/2007031900983.html

조선일보(2007.03.20.). 동대문야구장 48년만에 역사속으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20/2007032000065.html

조선일보(2007.11.14.). 동대문야구장, 1925~2007 “82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14/2007111400248.html

조선일보(2007.11.22.). 고척동에 ‘하프 돔’ 야구장 들어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22/2007112201268.html

조선일보(2008.03.10.). 10일 개장한 구의야구장, 야구 보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0/2008031001699.html

조선일보(2008.03.10.). 구의 간이야구장 오늘 문 열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0/2008031000129.html

조선일보(2008.04.04.). 서울은 뮤지컬 극장 공사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04/2008040400118.html

조선일보(2008.05.16.). 다시 태어난 목동 야구장 청룡을 품기엔 그만이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6/2008051601476.html
 조선일보(2008.11.20.). **공룡 유소년 야구장 오늘 개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20/2008112000129.html
 조선일보(2009.01.08.). **[수도권] 구로 ‘서남권 야구장’ 기본설계 확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7/2009010702106.html
 조선일보(2009.04.16.). **[오늘의 세상] 한국야구 ‘꿈의 지붕’ 뒀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16/2009041600028.html
 조선일보(2009.09.08.). **[수도권] 문화예술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구로.**

http://boomup.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08/2009090800756.html
 조선일보(2009.09.10.). **[수도권] 고척동 돔 야구장 지붕 완전히 뒀는다.**

http://boomup.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0/2009091000822.html
 조선일보(2009.10.27.). **[조선데스크] 새 야구장이 보고싶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27/2009102701704.html
 조선일보(2010.07.29.). **[말만 많은 야구장 신축] 光州는 돈이 문제, 安山은 돔이 문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8/2010072802249.html
 조선일보(2010.09.06.). **‘부산 갈매기’는 돔구장을 날고 싶은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5/2010090500936.html
 조선일보(2010.10.19.). **시의회, “돔야구장 예정대로 건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8/2010101802531.html
 조선일보(2012.01.09.). **[서울] 구로 고척교 왕복 10차로로 넓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8/2012010801800.html
 조선일보(2012.11.24.). **두산·LG·넥센 “고척돔구장으로 홈 이전 못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4/2012112400004.html
 조선일보(2013.11.21.). **서울市 “잠실야구장 헐고 복합 돔구장 짓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1/2013112100294.html
 조선일보(2015.04.02.). **[데스크에서] 서울시의 ‘야구장 甲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1/2015040104968.html
 조선일보(2015.05.20.). **국내 첫 돔구장 내달 완공... 고척 구장엔 ‘야구 우천 취소’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20/2015052000193.html
조선일보(2015.09.16.). 메이저리그급 고척 스카이드... 서울시·넥센, 사용료 놓고 줄다리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6/2015091600101.html
조선일보(2015.10.13.). 億 소리 나는 ‘10代들의 주주총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3/2015101300054.html
조선일보(2015.11.04.). 프리미어 12, 金李朴이 지배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4/2015110400174.html

<중앙일보>

중앙일보(2007.11.23.). 고척동에 하프 돔 2010년 ‘구원 등판’ .
<http://news.joins.com/article/2956917>
중앙일보(2009.01.08.). 서남권야구장, 향아리 모양으로.
<http://news.joins.com/article/3448699>
중앙일보(2009.04.15.). 서울에 돔구장 생긴다.
<http://news.joins.com/article/3571611>
중앙일보(2009.04.16.). 고척동 야구장, 완전 돔으로 건립.
<http://news.joins.com/article/3572367>
중앙일보(2009.04.16.). 오세훈 서울시장 “WBC 유치 가능한 3만석 돔구장도 짓겠다” .
<http://news.joins.com/article/3573526>
중앙일보(2009.04.17.). [브리핑] 서울시 “3만 석 돔구장도 건립 추진” .
<http://news.joins.com/article/3574053>
중앙일보(2010.10.06.). 한강예술섬·돔구장 서울시의회서 제동.
<http://news.joins.com/article/4532287>
중앙일보(2010.12.22.).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하려고 미래형 사업 막아” .
<http://news.joins.com/article/4824542>
중앙일보(2011.04.28.). [세설(世說)]대형 돔구장 건립할 때 왔다.
<http://news.joins.com/article/5412487>
중앙일보(2012.01.09.). [브리핑] 경인로 고척교 8 -> 10차로로 확장.

<http://news.joins.com/article/7086772>

중앙일보(2012.07.31.). 애물단지 되나... 고척돔 돔구장.

<http://news.joins.com/article/8912622>

중앙일보(2013.02.01.). 어쩔꼬, 고척돔.

<http://news.joins.com/article/10575772>

중앙일보(2013.03.06.). 2017년 WBC는 한국에서...

<http://news.joins.com/article/10856316>

중앙일보(2013.04.13.). [내 생각은] 야구장 인프라 너무 낙후됐다.

<http://news.joins.com/article/11217868>

중앙일보(2013.07.24.). 목동 주민 “오후 6시 30분, 야구장 소음에 혈압 오르는 시간”.

<http://news.joins.com/article/12151755>

중앙일보(2013.09.11.). 395억 들여 또 설계변경... 고척돔, 애물단지 피할까.

<http://news.joins.com/article/12578503>

중앙일보(2013.11.19.). “좋은 경기장은 팬에게 꿈을 판다”.

<http://news.joins.com/article/13170958>

중앙일보(2013.7.15.). [프로야구] 비 오면 손 놓는 야구 고척돔은 감감무소식.

<http://news.joins.com/article/11987185>

중앙일보(2014.12.23.). [김식의 야구노트] 넥센과 침묵의 줄다리가... 고민됨 된 300억 고척돔

<http://news.joins.com/article/16762675>

중앙일보(2015.07.03.). 박병호 홈런, 천장 맞힐까... 도교돔보다 5m 높은 고척돔.

<http://news.joins.com/article/18158370>

중앙일보(2015.09.15.). [김식의 야구노트] 고척돔 이사 앞둔 넥센 40억 댄 전셋값 어찌나

<http://news.joins.com/article/18664736>

<동아일보>

동아일보(2009.12.16.). [데스크 시각/황태훈] 엄동설한에 경기하라고?... 서러운 고교 야구.

<http://news.donga.com/3/all/20091216/24832919/2>

동아일보(2009.12.17.). 고교야구의 소원 “잠실서 새봄 맞자”.

<http://news.donga.com/3/all/20091216/24863955/2>
 동아일보(2010.10.16.). 서울시의회, 9000억 市사업 줄줄이 제동.
<http://news.donga.com/3/all/20101016/31908134/1>
 동아일보(2010.10.19.). [가자의 늪이한제 세계청소년야구 유치해놓고 ‘고척동 돔구장’ 표류라나.:
<http://news.donga.com/3/all/20101019/31957985/1>
 동아일보(2010.11.17.). [수도권] 서울시, 의회 제동 건 사업 수정 추진.
<http://news.donga.com/3/all/20101117/32649734/1>
 동아일보(2010.12.22.). [수도권] 오세훈시장, 예산안 부결 市의회 원색적 비판.
<http://news.donga.com/3/all/20101222/33435145/1>
 동아일보(2011.08.17.). 올림픽 金 한국야구, 국제신뢰 금 갈라.
<http://news.donga.com/3/all/20110817/39582333/1>
 동아일보(2012.07.16.). [수도권] “쏟다는 팀이 없네” 고척동 돔구장 적자 걱정.
<http://news.donga.com/3/all/20120716/47788138/1>
 동아일보(2012.11.23.). [수도권] 서울 잠실야구장 신축대신 리모델링.
<http://news.donga.com/3/all/20121123/51044918/1>
 동아일보(2012.11.24.). [IN&OUT] 만루홈런 장담 원순씨의 ‘삼중살 야구정책’.
<http://news.donga.com/3/all/20121124/51070696/1>
 동아일보(2012.12.15.). “10구단 승인 홈런, 9회말 투아웃에 터졌죠”.
<http://news.donga.com/3/all/20121215/51612768/1>
 동아일보(2014.03.07.). [수도권] 고척 돔구장-장충체육관 지붕에 열선 설치.
<http://news.donga.com/3/all/20140307/61505116/1>
 동아일보(2014.05.26.). [@뉴스룸/이승진] 구의야구장과 고척돔.
<http://news.donga.com/3/all/20140526/63753959/1>
 동아일보(2014.09.15.). [기고/이병석] 학교 야구부 더 있어야 기적의 역사 잇는다.
<http://news.donga.com/3/all/20140915/66400191/1>
 동아일보(2015.08.11.). [수도권] 1만8000석 고척돔, 주차공간은 492대.
<http://news.donga.com/3/all/20150811/72977337/1>
 동아일보(2015.09.16.). UFO 내려앉은 듯… 낮엔 조명 없어도 환한 ‘햇빛친화형’.

<http://news.donga.com/3/all/20150916/73649954/1>

동아일보(2015.10.06.). 넥센, 2016년부터 안방구장 고척돔 사용 확정.

<http://news.donga.com/3/all/20151006/74016623/1>

<한겨레>

한겨레(2007.03.16.). 동대문야구장 11월 열린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196741.html>

한겨레(2007.08.03.). ‘구의정수장에 야구장 건설’ 반발 확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226606.html>

한겨레(2007.11.23.). 서울시, 고척동에 1073억 투입 ‘하프돔 야구장’ 건립.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252143.html>

한겨레(2008.04.14.). 목동야구장 딜레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281923.html>

한겨레(2009.03.30.). 서울에도 ‘도쿄돔’ 같은 야구장 생길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47100.html>

한겨레(2009.04.15.). 첫 ‘돔구장’ 구로에 생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9961.html

한겨레(2009.05.15.). 이승엽 홈런의 비밀은 ‘돔구장?’ .

<http://www.hani.co.kr/arti/science/kistiscience/355098.html>

한겨레(2010.07.21.). “안양천 뱃길, 생태 파괴·경제성도 없어”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431568.html>

한겨레(2010.10.15.). 서울시 한강예술섬 사업 ‘제동’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44090.html>

한겨레(2012.06.04.). 야구발전 방향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36124.html>

한겨레(2012.11.22.). 서울시 ‘잠실야구장 신축’ 백지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61985.html>

한겨레(2013.02.05.). [한겨레 프리즘] 고척돔과 진해구장 /김양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72856.html>

한겨레(2013.09.10.). 고척동 돔구장서 공연도 할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02976.html>

한겨레(2015.01.06.). 국내 첫 돔구장 주인 맞이… 벌써부터 ‘뚜껑’ 열리겠네.

<http://www.hani.co.kr/arti/sports/baseball/672358.html>

한겨레(2015.03.23.). [유레카] 탄생 반세기 ‘에스트로돔’ /김양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83536.html>

한겨레(2015.07.29.). 서울시, 운동장 광고수익 연고 야구단과 분배.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702305.html

한겨레(2015.09.08.). 고척 돔구장에 넥센 등지 안착할까.

<http://www.hani.co.kr/arti/sports/baseball/707964.html>

한겨레(2015.09.15.). 지하 불펜·투명 지붕… MLB 돔구장 안부럽네.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708971.html

<경향신문>

경향신문(2007.03.20.). 동대문 야구장 48년만에 철거, 7곳에 대체구장 건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3191832081&code=950201

경향신문(2007.11.23.).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하프돔 야구장 세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230437101&code=950201

경향신문(2009.01.07.). 서울 서남권 야구장 2만여석 규모로 확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071748035&code=950201

경향신문(2009.03.30.). 서울 고척동에 ‘돔 야구장’ 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301803085&code=950201

경향신문(2009.04.15.). 2011년 서울에 돔구장… 고척동 야구장 ‘전면 돔’ 형태로 짓기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151751445&code=950201

경향신문(2009.04.17.). 3만석이상 돔구장도 추진.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0904162247066&sec_id=510201

경향신문(2009.05.07.). [흐름과 소통] “한국 최초 돔구장에 의미”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71741155&code=210000
경향신문(2009.11.26.). “첨단 디지털과 명품 문화 어우러진 ‘일류 구로’ 될 것”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61519211&code=940100
경향신문(2010.01.22.). “돔구장 건립은 안산시의 행운”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001220500115&code=920501
경향신문(2010.05.31.). “서울·부산에 돔구장 건설할 때 됐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311815395&code=980101
경향신문(2010.10.17.). 돔구장 변경안 부결 ‘시끌’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72158255&code=980101
경향신문(2013.03.06.). 대만서도 하는데… WBC 한국 유치 언제쯤?.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303052150176&sec_id=510101
경향신문(2013.09.05.). [단독] 야구 경기·공연장 등 복합공간 ‘잠실 돔구장’ 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050600035&code=980101
경향신문(2013.09.05.). ‘잠실돔’ 이번엔 진짜 생기나.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309050600013&sec_id=510201
경향신문(2013.09.26.). “창원시, 신축구장 부지 바꿔라” 두 팔 걷은 야구계.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309252240476&sec_id=510201
경향신문(2014.12.17.). 고척돔, 누구를 위한 구장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72357595&code=980101
경향신문(2015.09.25.). 비오는 날 ‘공 친다’ … 국내 최초 돔야구장
‘고척스카이돔’ 7년 만에 완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52149005&code=980101
경향신문(2015.10.26.). [정윤수의 오프사이드] 고척돔에 ‘문화’ 를 입히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62041285&code=990100
경향신문(2015.10.27.). 아시아의 음악과 춤을 즐긴다… 30일 고척스카이돔서
‘구로아시아문화축제’ 개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71016501&code=620101

< 부 록 >

IRB No. 1712/003-007

유효기간: 2018년 12월 17일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스포츠시설 건립의 담론과 인식에 관한 연구: 고척스카이돔을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명 : 박승일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스포츠시설 건립의 담론과 인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박승일(010-5060-7051)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담론분석과 인식을 통해 스포츠시설 건립의 담론과 인식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고척돔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와 지역사회의 관련자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될까요?

귀하를 대상으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면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부터 최초 건립 논의가 시작되었던 고척동 야구장부터 2015년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까지, 그것과 관련된 여러 관련 단체 및 집단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입니다. 조사 과정으로는 심층면담이 1회 실시되며, 심층면담 후 생기는 의문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2회 심층면담 및 온라인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층면담 시 연구를 위한 녹음이 진행되며 연구의 종료와 함께 녹음파일은 폐기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17년 12월부터 연구 참여가 이루어지며, 1회의 심층면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연구과정 중 1-2회 추가적인 심층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층면담은 약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참여를 그만두시면 그동안 모아진 자료는 즉시 폐기할 예정입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의 심층면접 과정에서 불편함 혹은 불쾌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자는 노력할 것이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윤리적인 고려할 것입니다. 첫째, 연구 결과에 참여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기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셋째, 연구 중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연구자 개인 컴퓨터 및 연구실 개인 서랍에 보관을 철저히 하여 보관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스포츠시설의 건립과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박승일(010-)입니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본 연구에 참여에 따른 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의 뜻으로 카페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음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____ 박승일 _____ 전화번호: __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 진행과정에서 녹음과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Abstract

A Research on the Media Discourse and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Park, Seungil

Dept. of Phys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ake a look at the media discourse on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and to study how the recognition of the stakeholders(The local governments, the baseball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who are interested in relation to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have been appear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following were set up as the research problems: (1) How do the media discourse on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appear?, and (2) How do the recognition of the stakeholders(The local governments, the baseball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who have the interest regarding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appear?

From March 2017 until January 2018, this research collected the data and the material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s,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the in-depth interviews related to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The discourse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100 articles, which were searched with the keywords of 'the Gocheok Dome', 'the Gocheok-dong Baseball Field', and 'the Southwestern area baseball field', as the objects, among the online articles of The Chosun Ilbo, The JoongAng Ilbo, The Dong-A Daily News, The Hankyoreh, and The Kyunghyang Shinmun from August 2005, when the Gocheok Dome was first discussed until November 2015, which was the very first opening da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and the discourse analysis, the in-depth interviews were proceeded with by selecting 9 research participants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s, the baseball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Through this,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arrived a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 discourse regarding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firstly, through the building of the very first domed stadium, the discourse on the attraction of the international events and on the new baseball field, of which the role is like a new landmark of the Seoul City, were formed. Secondly, through the compensations resulting from the tearing down of the Dongdaemun Baseball Stadium and the reproduction of the shrine of the amateur baseball, the discourse on the nostalgia that arouses the homesickness for the past and the discourse on the reproduction of the past were formed. Thirdly, a positive discourse that expressed that a dream was materializ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design from the open-type stadium to a complete stadium was formed. Fourthly, a discourse, too, which represents the Gocheok Dome as a nuisance through the critical viewpoint resulting from the locational selection and the increase of the budget, was formed. Fifthly, although the building of the Gocheok Dome gives the influence on the local development and the local frictions, the discourse that, eventually, the efficiency must be maximized by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each other.

Regarding the recognition by the people having an interest in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firstly, as a recognition on the building of the dome stadium, it had been appearing regarding the very first and only dome stadium, the role as a landmark, the spreading of the dome stadiums, the gaze of the worry, and the problems of the location and the traffic. Secondly, as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changes of the design, it appeared regarding the building of a baseball field which can be used at all times, the decision on the baseball field exclusively for use by the professionals, and the changes of the design of number 8. Thirdly, as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baseball, the expansion of the base of baseball, the expansion of the infrastructure, and the absence of the consultations with the baseball organization appeared. Fourthly, as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community, it had been appearing as a suspicion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image and the local development.

key words: Gocheok Sky Dome, dome stadium, sport facility,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tudent ID Number: 2015-21662